

『黃帝內經明堂』을 중심으로 살펴본 肺經 腧穴 배열법에 관한 고찰

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學科¹·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²·韓醫學古典研究所³
安鎮熹^{1,2,3}·白裕相^{2,3}·張祐彰^{2,3}·丁彰炫^{2,3**}

A Study on the categorization of acupuncture points of the Lung Meridian based on *Hwangdineijingmingtang*

Ahn, Jinhee^{1,2,3}·Baik, Yousang^{2,3}·Jang, Woochang^{2,3}·Jeong, Changhuyn^{2,3**}

¹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³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zation of acupuncture points of the Lung Meridian(肺經) based on *Hwangdineijingmingtang*(黃帝內經明堂).

Method : This paper examines several texts regarding the Lung Meridian.

Result and Conclusion : Out of Yang Shangshan(楊上善)'s work, the theoretical aspects are presented in *Hwangdineijingmingtang*, whereas contents regarding acupuncture points are presented in *Hwangdineijingmingtang*. This is due to Yang's position as an imperial doctor(太醫侍御). In *Hwangdineijingmingtang*, Yang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Metal(金) based on *Hwangdineijingmingtang* followed by an explanation of the acupuncture points of the Lung Meridian, which shows his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ridian as the main branch and the viscera. Along this medical logic, Yang must have included LU1(中府) into the Lung Meridian. This is Yang's unique point of view, distinguishing itself from other texts regarding the Lung Meridian. Apart from the means of explanation of the Lung Meridian by Yang, the verse 'made a volume for each 12 meridian' in the introduction of *Hwangdineijingmingtang*, discussion of the main treatable diseases of *Hwangdineijingmingtang*, contents on pathways of *Lingshu-Jingmai*(靈樞·經脈), the start and end points of the meridians in *Lingshu-Maidu*(靈樞·脈度) points to the assumption that each acupuncture point's belonging meridian known to us today was fixated by Yang.

Key Words : *Hwangdineijingmingtang*, Yang Shangshan, Lung Meridian, The categorization of acupuncture points, LU1, LU2.

* 본 논문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2단계 Brain Korea 21
事業의 지원을 받아 研究되었음.

** 교신저자 : 丁彰炫, 서울 東大門區 回基洞 1番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TEL : 0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접수일(2012년 5월 16일), 수정일(2012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8일)

I. 序 論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이하 『太素』라고 약칭)와 『黃帝內經明堂』(『黃帝內經明堂類成』이라고도 하는데, 이하 『明堂』이라 略稱)을 편찬했다. 현재 『太素』는 25권이 남아 있고, 『明堂』은 13권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유실되고 序文과 手太陰肺經으로 구성된 1권만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다.

논자는 『太素』 변역연구 중 『太素』 뒷부분에 습본된 『明堂』의 서문에서 “『內經』의 깊은 뜻은 『太素』로써 펼쳐 내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腧穴에 대한 연구는 『明堂』을 통해 드러내었다.”³⁾, “12경맥을 각각 1권씩 만들고, 기경팔맥을 다시 1권 만들어 합하니 13권이 되었다.”⁴⁾는 서술에 착안하여 침구학적 의의를 기대하고 『明堂』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도중 『明堂』에서는 『明堂』 이전의 문헌들과 달리 체간에 위치한 中府穴을 팔에 위치한 나머지 手太陰肺經의 수혈들과 함께 肺經에 소속시켜 有機的으로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발견했는데, 언제부터 11개 手太陰肺經의 수혈들이 현행 經絡經穴學 공통 교재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배열 체제⁵⁾를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래 수혈 배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헌적 기록 중 하나는 『靈樞·經脈』의 流注路線⁶⁾ 서술인데, 이는

경락과 장부의 屬絡關係를 계통적으로 서술함으로써 內外表裏의 有機的 연관關係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혈 배열을 의미 있게 서술하는 방식의 중점은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針灸甲乙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등의 문헌에서는 체간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이 胸部에서 서술되고, 팔에 있는 手太陰肺經의 나머지 수혈들은 「手太陰及臂」 또는 「手太陰肺經」 항목 아래에 분리 서술됨으로써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나타난 有機的 사고와 동떨어져 있는 반면, 楊上善이 『明堂』을 만들 때 과감하게 체간의 수혈인 中府穴을 手太陰肺經에 포함시켜 서술한 것은 인체를 진단할 때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나타난 바대로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것은 『銅人腧穴鍼灸圖經』이나 『聖濟總錄』보다 350여 년 앞서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헌적,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그 의의를 살펴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초기문헌에 나타난 肺經의 流注와 腧穴

1)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의 肺經의 流注

(1)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의 肺經의 流注

1973년 중국의 長沙 馬王堆 3호 漢墓에서 출토된 帛書의 일부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는 아직 腧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經脈 流注의 소략한 형태가 드러난다. 『足臂十一脈灸經』에서의 手太陰肺經 流注는 다음과 같다.

6) 經脈 流注의 방향은 사지말단에서 체간으로 향하는 求心性과 체간에서 사지말단으로 향하는 遠心性의 두 방향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求心性과 遠心性의 논의보다는 체간의 수혈과 四肢의 수혈을 함께 묶어 서술하여 경락과 장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얼마나 중시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1) 明堂: '明堂'의 의미에 대해 錢超塵은 첫째, 天子가 政令을 發布하는 궁실이며 둘째, 코나 눈을 가리키는 호칭이라고 했다. 의학 경전에서 '明堂'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관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경락이 온 몸에 두루 퍼져있어서 四體百節과 動靜喜樂이 經絡으로써 결정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經絡과 인체의 관계가 天子와 臣民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905.
2)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699-722.
3)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3. “太素陳其宗旨, 明堂表其形見.”
4)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702-703. “十二經脈各爲一卷, 奇經八脈復爲一卷, 合爲十三卷焉.”
5) 현행 교과서에는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을 따라서 '中府, 雲門, 天府, 俠白, 尺澤, 孔最,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의 순서로 수혈들을 배열하고 있다. 전국한의학대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 經絡經穴學 各論(上). 원주, 醫方出版社. 2009. pp.8-51.

臂泰陰脈⁷⁾, 循筋上廉, 以走臍內, 出腋內廉, 之心⁸⁾.

또한 『陰陽十一脈灸經』에서의 手太陰肺經 流注는 다음과 같다.

臂鉅陰之脈, 起於手掌中, 出臂內陰兩骨之間, 上骨下廉, 筋之上, 出臂內陰, 入心中⁹⁾.

(2)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아직 手太陰肺經의 구체적인 腧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肺經의 流注는 ‘從手走胸’하는 求心性 流注를 나타내고 있고¹⁰⁾, ‘之心’과 ‘入心中’ 등의 표현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黃帝內經』에서의 肺經 流注와 腧穴

『黃帝內經』(이하 『內經』이라 약칭)에서 經脈의 流注는 『靈樞·經脈』에 나오지만, 肺經의 腧穴은 현재 11穴 중에서 8穴이 『內經』의 여러 편에 散在되어 있다.

(1) 『黃帝內經』에서의 肺經의 流注

『靈樞·經脈』에는 手太陰肺經의 流注가 다음과 같이

7) 초기 經脈의 명칭은 단지 ‘脈’이라고 칭했으나, 晉代 王叔和의 『脈經』에 이르러 ‘經’이라 명명하였고, 唐代 孫思邈의 『千金要方』에서 경맥의 명칭을 체계화시켰다. 臂泰陰溫(『足臂』), 臂鉅陰脈(『陰陽』)⇒ 臂太陰(『靈樞·寒熱病』)⇒ 手太陰(『黃帝內經』의 各篇)⇒ 肺手太陰之脈(『靈樞·經脈』)⇒ 肺手太陰經(『脈經』)⇒ 手太陰肺經(『千金要方』) 孫光緒,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關한 研究(I). 東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7. 6(1). p.37.

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07.

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67.

10) 이에 대해 王德深과 黃龍祥은 『帛書』(『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 실린 것은 모두 ‘從手至心中’ 하지만, 『靈樞·經脈』에서는 ‘從胸至手’하며 肺에 屬하고, 大腸에 絡한다고 했다. 『靈樞·邪客』에서는 手太陰經이 從胸至手하는 것을 ‘順’으로 여겼고, 從手至胸하는 것을 ‘逆’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두 종류의 학설이 并存하였으나, 점차적으로 『帛書』에서 『靈樞·經脈』으로 향하여 가는 과도기적인 발전과정을 반영한다고 했다.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4. p.552 참조.

나타나 있다.

“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屬肺, 從肺系橫出腋下, 下循臍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靈樞·經脈』¹¹⁾

이와 같이 『靈樞·經脈』에서는 경락과 장부의 屬絡 관계를 서술하여 內外表裏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표현 하였으나, 구체적인 腧穴이 함께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2) 『黃帝內經』에서의 肺經의 腧穴

手太陰肺經에 속하는 腧穴 11개 중에서 8개가 『內經』의 여러 편에 散在되어 나오는데, 散在된 腧穴의 본문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 3개의 수혈은 ‘中府, 俠白, 孔最’로, 『黃帝內經』에는 나오지 않고 『鍼灸甲乙經』에 처음 나온다.

① 雲門

“雲門, 鶻骨, 委中, 髓空, 此八者, 以瀉四肢之熱也.” 『素問·水熱穴論』¹²⁾

② 天府

“腋內動脈, 手太陰也, 名曰天府. 腋下三寸.” 『靈樞·本輸』¹³⁾

③ 尺澤

“入於尺澤. 尺澤, 肘中之動脈也, 爲合, 手太陰經也.” 『靈樞·本輸』¹⁴⁾

④ 列缺

“手太陰之別, 名曰列缺, 起於腕上分間, 並太陰之經. 直入掌中, 散入於魚際.” 『靈樞·經脈』¹⁵⁾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9.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4.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⑤ 經渠

“行於經渠。經渠，寸口中也，動而不居，爲經。”『靈樞·本輸』¹⁶⁾

⑥ 太淵

“陽中之少陰，肺也，其原出於太淵，太淵二。”『靈樞·九鍼十二原』¹⁷⁾

“注於太淵。太淵，魚後一寸陷者中也，爲腧。”『靈樞·本輸』¹⁸⁾

⑦ 魚際

“溜於魚際。魚際者，手魚也，爲榮。”『靈樞·本輸』¹⁹⁾

⑧ 少商

“肺出於少商。小商者，手大指端內側也，爲井木。”『靈樞·本輸』²⁰⁾

(3)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靈樞·經脈』의 手太陰肺經 流注는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求心性 流注와 다르게 ‘從胸走手’하는 遠心性 流注를 나타내고 있으며, ‘之心’ 혹은 ‘入心中’과 같은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소박한 서술에서 ‘上膈屬肺’, ‘下絡大腸’과 같은 경락과 장부의 屬絡관계가 뚜렷이 명시되는 서술방식으로 변모되었다.

또한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구체적인 腧穴이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黃帝內經』에는 비록 手太陰肺經의 11개 腧穴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8개의 수혈이 나타난다. 다만 그 8개의 수혈들이 『靈樞·本輸』를 포함한 여러 편에 散在되어

있어,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나타난 바대로 手太陰肺經의 수혈을 경락과 장부의 屬絡關係를 바탕으로有機的으로 운용하기에는 아직 難點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서 분리된 문헌

1) 『鍼灸甲乙經』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鍼灸甲乙經』(256-259년)은 皇甫謐이 『素問』, 『鍼經』, 『明堂孔穴鍼灸治要』의 3권을 분류하여 다시 合編한 鍼灸書로, 모두 10권인데 후에 12권으로 改編하였다. 이 책에는 單穴 49개와 雙穴 300개, 즉 穴名 349개, 총 649개의 혈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靈樞·經脈』에 나오는 각 經脈의 流注는 권2에 나오고, 腧穴의 위치와 刺灸法 등은 권3에 나온다. 腧穴을 서술할 때, 체간부위의 腧穴은 頭, 背, 面, 耳, 頸, 肩, 胸, 腋脇, 腹과 같이 부위별로 크게 구분하고, 팔과 다리에 있는 腧穴들은 경맥별로 서술했다. 그러나 경맥의 순서는 『靈樞·經脈』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手經, 足經으로 나누는 뒤에 手太陰, 手厥陰, 手少陰, 手陽明, 手少陽, 手太陽의 순서로 배열했고, 足經도 手經처럼 足太陰, 足厥陰, 足少陰, 足陽明, 足少陽, 足太陽의 순서로 배열했다.

手太陰肺經의 流注路線은 『靈樞·經脈』의 문장을 인용하여 권2 「十二經脈絡脈支別」 부분에 나와 있고, 手太陰肺經 腧穴의 이름, 위치, 脈氣所發,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와 같은 내용은 卷3에 나온다.

(1)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手太陰肺經의 腧穴중 체간부위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은 胸部의 腧穴중 가슴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胸自雲門俠氣戶兩傍各二寸下行至食竇凡十二穴」 부분에 나오는데, 수혈의 이름, 위치, 脈氣所發, 取穴法,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 등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雲門：在巨骨下，氣戶兩傍各二寸陷者中，動脈應手，足太陰脈氣所發，舉臂取之。刺入七分，灸五壯，

1985. p.84.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刺太深令人逆息(氣府論注云:在巨骨下,任脈兩傍各六寸.刺熱穴論注云:手太陰脈氣所發²¹).
中府:肺募也,一名膺中俞.在雲門下一寸,乳上三肋間動脈應手陷者中,手足太陰之會²².刺入三分,留五呼,灸五壯²³).

본문에 나타난 腧穴 중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中府와 雲門穴에 대해, 특히 그 脈氣所發²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中府穴은 脈氣所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手足太陰之會’라고 했는데, 明刊 醫統正脈本, 明代 藍格抄本, 正統抄本 『甲乙經』에서는 ‘手太陰之會’라고 하여 後代 醫家들이 소속 경맥을 결정할 때, 楊上善은 肺經에 소속시키고, 王燾는 脾經에 소속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1) 『素問·刺熱』에서 “病甚者爲五十九刺.”에 대한 王冰注에 “雲門, 在巨骨下, 胸中行兩傍. 新校正云, 按氣穴論注, 胸中行兩傍作俠任脈傍橫去任脈, 文雖異, 穴之處所則同. 相去同身寸之六寸動脈應手, 中府當其下同身寸之一寸, 雲門, 手太陰脈氣所發, 舉臂取之, 刺可入同身寸之七分, 若灸者可灸五壯.”이라고 했다. 王冰 著,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影印本), 서울, 一中社, 1993, p.91.

王冰은 雲門에 대해 『素問·刺熱』의 注에서는 ‘手太陰脈氣所發’이라고 하고, 『素問·水熱穴論』의 注에서는 ‘足太陰脈氣所發’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 手足太陰之會: 黃龍祥은 ‘手足太陰之會’는 底本으로 삼은 明刊 醫統正脈本에는 원래 ‘手太陰之會’로 되어 있으나, 按근대 ‘手太陰’뿐이라면 ‘會’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것이므로 반드시 脫文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素問·氣府論』에서 新校正이 『甲乙經』을 인용할 때 ‘手足太陰之會’라고 했으므로 ‘足’자를 보충한다고 했다. 黃龍祥 校注,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162.

23) 黃龍祥 校注,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161.

24) ‘脈氣所發’은 經脈의 氣가 발현되는 곳으로, 경맥선상의 수혈에 위치하여 곧 이 經의 脈氣가 發 하는 경우가 있고, 경맥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經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 어떤 經의 脈氣가 所發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인접한 몇 개의 經은 ‘~脈之會’라 하였다.(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753.) 柳姪我는 ‘黃帝內經太素’의 輸穴理論에 관한 고찰에서 ‘脈氣所發’은 經脈의 流注路線 및 인접한 부위로 경맥의 脈氣가 發하는 ‘氣府’의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楊上善이 『太素』를 편찬할 때 脈氣所發의 氣府개념과 輸穴歸經을 구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柳姪我, 『黃帝內經太素』의 輸穴理論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1), p.40.)

雲門穴의 脈氣所發은 판본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지는데, 『素問·水熱穴論』에 나오는 雲門穴에 대한 王冰注와 新校正이 인용한 『甲乙經』 판본에서는 ‘足太陰脈氣所發’²⁵로 되어 있고, 明刊 醫統正脈本 『甲乙經』에서는 ‘太陰脈氣所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 소장된 明代 藍格抄本 및 正統抄本 『甲乙經』에는 ‘手太陰脈氣所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雲門穴의 脈氣所發이 ‘太陰’, ‘手太陰’, ‘足太陰’ 등 판본마다 달라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後代의 楊上善이 手太陰肺經을 구성하고 있는 수혈들 중 雲門穴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판본마다 달라지는 雲門穴의 脈氣所發 표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관한 내용은 항목 ‘Ⅲ. 考察-中府와 雲門穴이 肺經流注에 연결된 의의를 중심으로’에서 後述한다.

(2)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肺經 腧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은 모두 卷3 「手太陰及臂凡一十八穴」에 나오는데, 수혈의 이름과 속성, 위치, 脈氣의 움직임에 따른 五輸穴의 명칭,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를 서술하고 있다.

肺出少商, 少商者, 木也.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手太陰脈之所出也, 爲井. 刺入一分, 留一呼, 灸一壯.(氣府論注云: 作三壯)

魚際者, 火也. 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中, 手太陰脈之所溜也, 爲榮. 刺入二分, 留三呼, 灸三壯.

太淵者, 土也. 在手掌後陷者中, 手太陰脈之所注也, 爲俞. 刺入二分, 留二呼, 灸三壯.

25) 足太陰: 黃龍祥은 校注에서 ‘足太陰’은 底本으로 삼은 明刊 醫統正脈本에는 원래 ‘太陰’으로 되어 있으나, 『素問·水熱穴論』에서 新校正이 『甲乙經』을 인용한 것에 근거하여 ‘足’자를 보충했다고 했다. 『素問·水熱穴論』의 雲門에 대한 王冰注와 新校正의 논설은 다음과 같다. “雲門在巨骨下胸中行兩傍相去同身寸之六寸動脈應手足太陰脈氣所發. 新校正云按甲乙經同氣穴注作手太陰刺熱注亦作手太陰.”(王冰 著,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影印本), 서울, 一中社, 1993, p.157.) 이로써 現行 『鍼灸甲乙經』 판본에는 ‘足太陰脈氣所發’로 되어 있는 판본이 없으나, 校正醫書局에서 新校正을 낼 때는 ‘足太陰脈氣所發’로 되어 있는 판본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經渠者, 金也. 在寸口陷者中, 手太陰脈之所行也, 爲經.
刺入三分, 留三呼, 不可灸, 傷人神明.
列缺, 手太陰之絡, 去腕上一寸五分, 別走陽明者.
刺入三分, 留三呼, 灸五壯.
孔最者, 手太陰之郄, 去腕七寸, 專金二七, 水之父母, 刺入
三分, 灸五壯.
尺澤者, 水也. 在肘中約上動脈, 手太陰脈之所入也, 爲合.
刺入三分, 留三呼, 灸三壯.
俠白者, 在天府下, 去肘五寸動脈, 手太陰之別. 刺入四分,
留三呼, 灸五壯.
天府, 在腋下三寸, 臂臑內廉動脈, 手太陰脈氣所發.
禁不可灸, 使人逆氣. 刺入四分, 留三呼²⁶⁾.

이상과 같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팔에 있는 手太陰肺經의 수혈은 『靈樞·本輸』, 『靈樞·九鍼十二原』, 『靈樞·邪客』의 ‘從手走胸’하는 流注方向을 따라서 少商, 魚際, 太淵, 經渠, 列缺, 孔最, 尺澤, 俠白, 天府穴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3)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皇甫謐도 이론과 임상 실재를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素問』, 『靈樞』, 『明堂孔穴鍼灸治要』의 三部의 책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였으나, 手太陰肺經의 流注와 腧穴이 有機的으로 하나의 항목 내에서 서술되지 않고, 肺經의 流注는 권2 「十二經脈絡脈支別」의 항목에서 서술되고, 肺經의 腧穴 중 中府와 雲門穴은 권3의 「胸自雲門俠氣戶兩傍各二寸下行至食竇凡十二穴」에서, 팔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9개 수혈은 권3의 「手太陰及臂凡一十八穴」에서 기술되는 등 서로 다른 항목에서 서술되어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반영된 경락과 장부의 有機的 연관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千金要方』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千金要方』(652년 추정²⁷⁾)은 唐나라 때 孫思邈이

26) 黃龍祥 校注.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p.173-174.

27) 金度勳은 그의 논문에서 中國醫學通史(李經緯, 林昭庚 [共]主編. 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292.)

편찬한 醫書로, 『備急千金要方』이라고도 하며 전 30권으로 되어 있다. 권29와 30에서 鍼灸와 관련된 내용을 上下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데, 권29에서는 「明堂三人圖」, 「手足三陰三陽穴流注法」, 「鍼灸禁忌法」, 「五藏六府變化傍通訣」, 「用鍼略例」, 「灸例」, 「大醫鍼灸宜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권30에서는 「孔穴主對法」²⁸⁾이라는 제목 아래에 「頭面」, 「心腹」, 「四肢」, 「風痺」, 「熱病」, 「癭瘤」, 「雜病」, 「婦人病」이라는 항목을 설정한 뒤, 각각의 항목을 다시 세분하여 病症을 제시하고, 腧穴과 그 腧穴이 치료하는 구체적인 病證을 기술하고 있다.

권29의 「明堂三人圖」²⁹⁾는 「仰人明堂圖」, 「伏人明堂圖」, 「側人明堂圖」로 三分되어 있는데, 「仰人明堂圖」에는 282개, 「伏人明堂圖」에는 194개, 「側人明堂圖」에는 174개, 穴名은 349개, 單穴 48개, 雙穴 301개로 총 650개의 혈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腧穴 배열에 있어서는 기존의 『鍼灸甲乙經』과 다른 구성³⁰⁾을 하고 있다. 『鍼灸甲乙經』에서는 體간의

에서는 永徽 3년(652년)에 편찬하였다고 보았으며, 659년에 완성된 『新修本草』의 ‘烏芋’ 등의 조문에서 『千金要方』의 문장을 인용한 것으로 볼 때, 『千金要方』의 편찬 연대는 이것(659년)보다 앞선다고 추정했다. 金度勳, 『刪繁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外臺秘要方』, 『千金方』, 『醫心方』을 중심으로.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p.15.

28) 孔穴主對法: 孔穴主對法의 의미는 孔穴, 즉 腧穴의 이름은 위에 있고, 病狀은 바로 아래에 두어 孔穴과 그 孔穴이 주치하는 病證을 마주 보게 했다는 뜻이다. “凡云孔穴主對者, 穴名在上, 病狀在下.”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23.

29) 孫思邈은 옛 「明堂圖」가 오래되어 傳寫의 착오가 있으므로 기준을 삼을 수 없고, 甄權 등이 새로 지은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했다. “舊明堂圖, 年代久遠, 傳寫錯誤, 不足指南. 今一依甄權等新撰爲定云耳.”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08.

「明堂三人圖」는 『千金要方』에 나오는 표현인데, 「三人明堂圖」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0) 『鍼灸甲乙經』과 『千金要方』의 서로 다른 수혈 배열 방식은 頭部의 수혈 배열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鍼灸甲乙經』에서는 上星, 額會, 前頂, 百會, 後頂, 強間, 腦戶, 風府를 「頭直鼻中入髮際一寸循督脈却行至風府凡八穴」에서 한꺼번에 배열하고 있으나, 『千金要方』에서는 「三人明堂圖」에 기준을 두었으므로, 앞면에서 보이는 上星, 額會, 前頂, 百會는 「仰人明堂圖」중 「仰人頭面三十六穴遠近法」의 「頭部中行」에서 배열하고, 뒷면에서 보이는 後頂, 強間, 腦戶, 風府는 「伏人明堂圖」중 「伏人頭上第一行五穴

腧穴은 부위별로 나누고, 四肢의 腧穴은 經脈을 중심으로 삼아 배열했는데, 『千金要方』에서는 「三人明堂圖」에 나오는 仰人, 伏人, 側人을 큰 기준으로 삼아三分했다.

첫째, 「仰人明堂圖」 부분에 頭面, 胸腹部에 위치한 腧穴과 몸의 앞쪽을 지나가는 경맥, 즉 手太陰肺經, 手厥陰心經, 手少陰心經, 足太陰脾經, 足陽明胃經의 腧穴을 배열하고 있다.

둘째, 「伏人明堂圖」 부분에 頭上, 耳後, 脊中에 위치한 腧穴과 몸의 뒤쪽을 지나가는 경맥, 즉 手少陽三焦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의 腧穴을 배열하고 있다.

셋째, 「側人明堂圖」 부분에 耳頸, 側脇에 위치한 腧穴과 몸의 옆쪽을 지나가는 경맥, 즉 手陽明大腸經,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 足少陰腎經의 腧穴을 배열하고 있다.

(1)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은 「仰人明堂圖」부분 중 「胸部第四行六穴遠近法」에 나온다. 수혈의 이름, 위치, 取穴法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雲門：在巨骨下，俠氣戶兩傍各二寸陷中，動脈應手，舉臂取之。

中府：在雲門下一寸，一云一寸六分，乳上三肋間動脈應手陷中³¹⁾。

수혈 서술의 내용에 있어서 脈氣所發,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를 서술하지 않고 위치와 취혈법 등의 내용만 간략하게 서술했으며, 주치증은 다시 병증별로 분리해서 그 병증에 맞는 수혈을 서술했다.

(2)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肺經 腧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은 모두 「仰人明堂圖」부분 중 「手太陰肺經十穴」에 나온다. 수혈의

遠近法」에서 배열하고 있다. 李丙旭.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慶州.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p.142.

31)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997.

이름, 위치 등을 간략하게 서술했다.

少商：在手大指端內側，去爪甲角如韭葉。

魚際：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中。

大泉³²⁾：在手掌後陷者中。

經渠：在寸口陷者中. 不灸。

列缺：在腕上一寸半. 手太陰絡，別走陽明。

孔最：在腕上七寸. 手太陰郄也。

尺澤：在肘中約上動脈。

俠白：在天府下，去肘五寸動脈。

天府：在腋下三寸. 不灸。

臑會：在臂前廉，去肩頭三寸³³⁾。

여기서 特記할 만한 사항은 臑會가 手太陰肺經에 소속되어 함께 기술된 것이다. 臑會에는 細註가 달려 있는데, 『甲乙經』에서는 臑會가 肩部에 있고, 『外臺』에서는 手陽明大腸經에 속해 있으며, 『銅人經』에서는 手少陽三焦經에 속해 있다고 했다.³⁴⁾ 孫思邈이 臑會를 手太陰肺經에 둔 것은 天府와 俠白의 연장 선상에 臑會가 있으므로 같은 肺經의 범주에 집어 넣은 것으로 사료된다.

(3)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孫思邈은 『千金要方』에서 腧穴을 서술할 때 「三人明堂圖」에 나오는 仰人, 伏人, 側人을 큰 기준으로 삼아 서술했다.

孫思邈은 『鍼灸甲乙經』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계승하여 手太陰肺經의 腧穴 중 체간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은 「仰人明堂圖」부분 중 「胸部第四行六穴遠近法」에서 서술하고,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팔에 있는 나머지 9개의 수혈은 「仰人明堂圖」부분 중 「手太

32) 大泉：大泉에는 細註가 달려 있는데, 大泉은 곧 太淵을 가리키는 것으로, 唐太祖의 名을 避諱하기 위해 바꾸었으나, 太淵을 남겨둔은 후세 사람들이 大泉을 별도의 한 腧穴로 착각할까봐 두려워서라고 했다. “此即太淵也. 避唐祖名, 當時改正之, 今存此名不改, 正恐後人將爲別是一穴也.”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10.

33)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1000.

34) “『甲乙』此穴在肩部, 『外臺』屬大腸, 『銅人經』屬三焦.”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1000.

陰肺經十穴에서 서술하여 手太陰肺經의 수혈들을 두 군데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반영된 경락과 장부의 有機的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3) 『千金翼方』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千金翼方』(682년 추정)은 唐나라 때 孫思邈이 『備急千金要方』을 보충하여 편집한 의서로 전 30권으로 되어 있다. 鍼灸와 관련된 내용은 권26~28에 걸쳐서 나오는데, 권26의 「取孔穴法」에서 腧穴의 이름과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千金要方』에서 仰人, 伏人, 側人의 「三人明堂圖」를 기준으로 삼아 체간의 腧穴과 四肢의 腧穴을 함께 포괄적으로 서술했다면, 『千金翼方』에서는 체간의 腧穴과 四肢의 腧穴을 분리해서 서술하되, 체간의 수혈은 부위별로, 사지의 수혈은 경맥별로 기술하고 있다.

『千金翼方』에서는 수혈을 서술할 때, 『千金要方』처럼 甄權의 「三人明堂圖」를 참조³⁵⁾했으므로 仰人和 伏人이라는 용어³⁶⁾가 등장하기는 하나, 『千金要方』과 다르게 체간에 있는 腧穴의 이름과 위치를 頭面, 耳後, 脊中, 側脇, 胸部, 腹部 등 부위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經脈을 중심으로 한 四肢의 腧穴은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手厥陰心主經, 手少陽三焦經, 足太陰脾經, 足陽明胃經, 足厥陰肝經, 足少陽膽經, 足少陰腎經, 足太陽膀胱經의 순서로 기술했는데, 이것은 六藏의 공간적 上下 위치에 따라 肺, 心, 心包, 脾, 肝, 腎을 먼저 정한 뒤에 表裏관계에 있는 大腸, 小腸, 三焦, 胃, 膽, 膀胱의 經脈을 연관시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체간과 四肢의 腧穴을 기술한 뒤에는 「三陰三陽流注法」이라는 소제목으로 12經脈의 腧穴을 四肢의 말단부위에 있는 井穴부터 合穴까지 기술한 뒤에 腹募穴 및 背俞穴을 덧붙이고 있다. 肺經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肺手太陰：少商，魚際，大泉(太淵)，列缺，經渠，尺澤，
募中府，兪三椎³⁷⁾。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楊上善과 같은 流注路線을 고려한 생각은 아니지만 체간에 있는 腹募穴과 背俞穴을 四肢에 있는 腧穴들과 함께 기술함으로써 좀 더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은 「胸部第四行六穴」부분에 나온다. 수혈의 이름, 위치, 取穴法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雲門：在巨骨下氣戶兩傍各二寸陷中，動脈應手，舉臂取之。

中府：在雲門下一寸，乳上三肋間動脈應手陷中³⁸⁾。

(2)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肺經 腧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은 모두 「手太陰肺經十穴」에 나온다. 수혈의 이름, 위치 등을 간략하게 서술했다.

少商：在手大指端內側，去爪甲角如韭葉。

魚際：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內。

大泉³⁹⁾：在掌後陷中。

經渠：在寸口陷中，不灸。

列缺：在腕上一寸半。

孔最：在腕上七寸。

尺澤：在肘中約上動脈。

俠白：在天府下，去肘五寸動脈。

天府：在腋下三寸臂臑內廉動脈，不灸。

臑會：在臂前廉，去肩頭三寸⁴⁰⁾⁴¹⁾。

35) “今所述針灸孔穴，一依甄公明堂圖爲定，學者可細詳之。”
孫思邈 著，李景榮等 校釋，千金翼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8，p.397.

36) 「仰人面二十六穴，「伏人耳後六穴」처럼 仰人和 伏人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三人明堂圖」를 腧穴 기술의 기준점으로 삼지는 않았다.

37) 孫思邈 著，李景榮等 校釋，千金翼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8，p.408.

38) 孫思邈 著，李景榮等 校釋，千金翼方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8，p.402.

39) 大泉：太淵을 가리킨다.

40) 臑會：『千金要方』과 마찬가지로 手太陰肺經에 臑會가 들어가 있으나, 細註는 따로 달지 않았다.

(3)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孫思邈은 『千金翼方』의 수혈을 서술할 때, 『千金要方』을 서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三人明堂圖」를 참고하였으나, 전체적인 구도는 『鍼灸甲乙經』과 같이 체간부의 수혈은 부위별로, 四肢部의 수혈은 경맥별로 기술하고 있다.

一例로 孫思邈은 『千金要方』의 「仰人明堂圖」 부분을 서술할 때, 前面에서 보이는 頭部, 面部, 胸部, 腹部 등의 부위와 手太陰肺經, 手厥陰心經, 手少陰心經, 足太陰脾經, 足陽明胃經 등의 經脈을 동시에 서술하여 部位와 經脈이 섞이는 혼잡한 양상을 초래했으나, 『千金翼方』에서는 그 前例를 따르지 않고, 부위는 부위대로, 경맥은 경맥별로 나누어 기술했다.

孫思邈은 手太陰肺經의 수혈 배열에 있어서 체간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을 「胸部第四行六穴」에서 기술하고, 팔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9개의 수혈은 「手太陰肺經十穴」에서 체간의 수혈과 분리 서술함으로써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나타나는 경락과 장부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三陰三陽流注法」이라는 소제목으로 12 經脈의 腧穴을 井穴부터 合穴까지 서술한 뒤에 腹募穴과 背俞穴을 덧붙여 좀 더 통합적으로 사고 하려는 짝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特記할 만한 것은 膻會穴이 현재는 手少陽三焦經에 소속되어 있는데,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서 모두 手太陰肺經에 소속시켰다는 점이다.

4) 『外臺秘要方』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外臺秘要方』(752년)은 당나라 때 王燾가 당나라 초기와 그 이전의 의학서를 수집하여 편찬한 의서로 전 40권으로 되어 있다. 鍼法에 관한 내용이 없고, 권39에 灸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⁴²⁾, 권39의

구성은 「明堂序」, 「論邪入皮毛經絡風冷熱灸法」, 「論疾手足腹背灸之多少及補瀉八木火法」, 「不宜灸禁穴及老少加減法」, 「年神傍通并雜忌傍通法」, 「五藏六腑變化流注出入傍通」, 「十二身流注五藏六腑明堂」으로 이루어져 있다⁴³⁾. 「明堂序」에서

“經을 세워서 질병이 비롯되는 바를 말하고, 모양을 그려서 孔穴의 이름과 위치를 나타낸다. 만약 經은 있는데, 그림이 없다면 경맥의 수혈이 모이고 합하는 것을 밝힐 수 없고, 그림은 있는데 經이 없다면 백가지 질병의 요체를 논할 수 없다. 이로부터 보건대 글과 그림이 없을 수 없다.”⁴⁴⁾

고 하면서 十二經脈은 모두 五色으로, 奇經八脈은 綠色으로 표기하며, 諸家는 三人을 그렸으나 王燾 본인은 12經에 입각하여 十二身을 그림으로 그리고 책으로 傳한다고 설명했다⁴⁵⁾.

이 중에서 「十二身流注五藏六腑明堂」 부분에 腧穴이 나오는데, 單穴 49개와 雙穴 308개, 즉 穴名 357개⁴⁶⁾, 총 665개의 혈자리가 기록되어 있다.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기록한다면 性命을 傷하게 될까봐 두려워 지금 針經은 함께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灸法만을 취했다.”이라고 하면서 왜 灸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腧穴을 기술할 때도 刺鍼의 깊이나 留鍼 시간은 기술하지 않고, 수혈의 이름과 위치, 뜸장의 횟수, 주치병증만을 기술하였다.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 (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768.

43)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 (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768.

44)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 (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768. “故立經以言疾之所由, 圖形以表孔穴之名處, 比來有經而無圖, 則不能明脈之會合, 有圖而無經, 則不能論百疾之要也. 由是觀之, 書之與圖不可無也.”

45)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 (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768. “其十二經脈, 皆以五色作之, 奇經八脈, 並以綠色標記. 諸家並以三人爲圖, 今因十二經而盡圖人十二身也.”

46) 『鍼灸甲乙經』보다 8개의 腧穴이 증가되었는데, 7개의 奇穴 즉 後腋, 轉穀, 飲郄, 應突, 脇堂, 旁庭, 始素가 「膽人膽者肝之腑也」의 뒷부분(上揭書. p.775.)에 기술되었고, 『千金方』에서 나온 膏肓俞는 「膀胱人膀胱者腎之腑也」의 맨 끝(上揭書. p.782.)에 기술되었다.

41)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403-404.

42) 「明堂序」에서 “其針法古來以爲深奧, 今人卒不可解, 經云, 針能殺人, 不能起死人. 若欲錄之, 恐傷性命, 今並不錄針經. 唯取灸法(그 針法은 옛날부터 심오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지금 사람들은 마침내 이해할 수 없다. 經에서 이르기를, 針은 능히 산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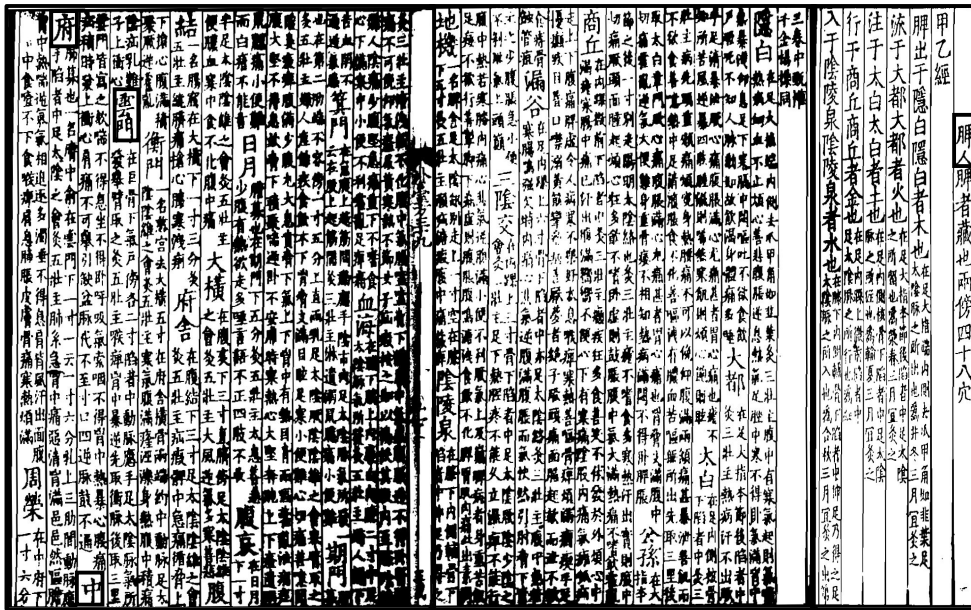


그림 21. 『外臺秘要方』에서의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1)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은 「脾人脾者藏也兩傍四十八穴」 부분 (그림 147) 참조)에 나오는데 腧穴名 및 中府와 雲門穴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隱白, 大都, 太白, 公孫, 商丘, 漏谷, 三陰交, 地機, 陰陵泉, 血海, 箕門, 期門, 日月, 腹哀, 大橫, 腹結, 府舍, 衝門, 雲門, 中府, 周榮, 胸鄉, 天谿, 食竇.

雲門: 在巨骨下, 氣戶傍各二寸陷者中, 動脈應手, 足太陰脈氣所發, 舉臂取之, 灸五壯. 主喉痺, 胸中暴逆, 先取衝脈, 後取三里, 雲門, 皆瀉之. 咳喘不得息, 坐不得臥, 呼吸氣索, 咽不得, 胸中熱, 暴心腹痛, 疝積時發, 上衝心, 肩痛不可舉, 引缺盆, 脈代不至寸口, 四逆脈鼓不通.

中府: 肺募也, 一名膺中俞, 在雲門下一寸, 一云一寸六分, 乳上三肋間動脈應手陷者中, 足太陰之會, 灸五壯.

47) 『外臺秘要方』에서는 수혈 배열이 經脈중심으로 배열되었으나 『靈樞經脈』의 流注路線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手太陰肺經에 속한 中府와 雲門穴이 足太陰脾經에 소속되어 있다.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p.775-776 참조)

主肺系急, 胸中痛, 惡清, 胸滿邑邑然嘔臆, 胸中熱, 喘逆氣, 氣相追逐, 多濁唾⁴⁸⁾, 不得息, 肩背風, 汗出, 面腹腫, 膈中食噎, 不下食, 喉痺, 肩息肺脹, 皮膚骨痛, 寒熱煩滿⁴⁹⁾.

(2)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肺經 腧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은 모두 「肺人脾者藏也兩傍一十八穴」부분에 나오는데, 우선 『鍼灸甲乙經』을 인용하여 五輸穴의 기본적인 속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肺出于少商, 少商者木也.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

48) 上掲書인 宋板 『外臺秘要方』에는 ‘垂’로 되어 있으나, 校勘과정을 거친 王焘 撰. 外台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797.에서는 ‘唾’로 되어 있고, 『外臺秘要方』(752년) 보다 앞서는 『鍼灸甲乙經』(259년 전후) 卷 8의 「五臟傳病發寒熱」 부분과 『黃帝內經明堂』(대략 666~683년)에서 中府의 主治症을 서술할 때 ‘唾’라고 했고, 의미상으로도 ‘唾’가 합당하므로 ‘垂’를 ‘唾’로 고쳤다.

49)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p.775-776.

如韭叶, 手太陰脈之所出也, 爲井. 冬三月宜灸之.

流于魚際, 魚際者火也. 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中, 手太陰脈之所留也, 爲榮. 春三月宜灸之.

注于太淵, 太淵者土也. 在掌後陷者中, 手太陰脈之所注也, 爲輸. 夏三月宜灸之.

行于經渠, 經渠者金也. 在寸口陷者中, 手太陰脈之所行也, 爲經. 不可灸, 傷人神明.

入于尺澤, 尺澤者水也. 在肘中約上動脈, 手太陰脈之所入也, 爲合. 秋三月宜灸之. 出第三卷中. 甄權, 『千金』, 楊操同⁵⁰⁾.

『鍼灸甲乙經』을 인용하여 『靈樞·本輸』에 나오는 ‘出流注行入’하는 ‘井榮輸經合’穴의 이름, 오행속성, 위치, 脈氣의 움직임에 따른 五輸穴의 명칭, 등을 서술한 뒤에 계절에 따른 灸法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外臺秘要方』의 ‘唯取灸法’의 특색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의 위치, 뜸장의 횟수나 可不可의 여부, 주치증, 음식금기 등을 서술하고 있다⁵¹⁾.

(3) 小考

『外臺秘要方』에서는 전체적인 수혈 배열이 경맥별로 배열되어 있는데, 手太陰肺經의 체간혈인 中府와 雲門穴은 「脾人脾者藏也兩傍四十八穴」, 즉 足太陰脾經에 소속되어 배열되었고, 팔에 위치한 수태음폐경의 나머지 수혈들은 「肺人肺者藏也兩傍一十八穴」, 즉 手太陰肺經에 소속되어 배열되었다.

그러나, 경맥별로 배열되었다고 해서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을 따른 것은 아니며, 四肢 말단의 井穴부터 체간쪽으로 수혈을 배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王燾가 이전 침구서적에서 체간의 수혈은 부위별로, 四肢의 수혈은 경맥별로 서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각의 수혈의 소속 경맥를 확정한 뒤 경맥별로 수혈 서술을 나뉠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0)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台秘要方(下)(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773.

51) 王燾 撰. 外台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p. 786-788.

5) 『醫心方』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醫心方』(982년)은 日本의 丹波康賴가 중국 唐나라 이전의 여러 醫書를 편집하여 정리한 종합 의서로 전 30권으로 되어 있다. 권2에 鍼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권2의 구성은 「孔穴主治法」⁵²⁾, 「諸家背輸法」, 「鍼禁法」, 「灸禁法」, 「鍼例法」, 「灸例法」, 「鍼灸服藥法」, 「人神所在法」, 「天醫鷓鴣所在法」, 「月殺厄月襄日法」, 「作艾用火法」, 「明堂圖」로 되어 있다⁵³⁾.

이 중에서 「孔穴主治法」부분에 腧穴의 이름과 위치, 자침의 깊이, 뜸장의 횟수, 소속귀경, 주치병증을 기술했는데, 그 구성은 머리에서 上肢로 이어지는 面部, 頸部, 肩部, 手部和 체간에서 下肢로 이어지는 背部, 胸部, 腹部, 側脇部, 足部로 구성되어 있다.

(1)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은 「孔穴主治法」부분 중에 「胸部諸穴四十三」에 나온다. 胸部는 다시 가슴 정중앙선을 一行으로 삼아 二行, 三行, 四行으로 細分되는데, 「四行左右十二穴」에 中府와 雲門穴이 나온다.

雲門二穴: 在巨骨下, 氣戶兩旁各二寸陷者中, 動脈應手, 舉臂取之. 注云巨骨謂是缺盆下畔橫大骨也. 刺七分, 灸五壯. 主喉痺, 胸中暴逆, 咳逆喘, 胸中熱, 心腹痛. 足太陰脾⁵⁴⁾

中府二穴: 肺募也, 一名膺中俞, 在雲門下一寸, 乳上三肋間動脈應手陷者中, 刺入三分, 留五呼, 灸五壯. 同上⁵⁵⁾, 又手太陰肺. 主咳, 胸中痛, 惡清, 多唾, 肩背風, 汗出, 面腹腫, 喉痺, 肩息肺脹, 皮膚骨痛⁵⁶⁾.

(2)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肺經 腧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은 모두 手부에

52) 「孔穴主治法」에는 총660穴이 기재되어 있고, 穴名은 354개가 나온다.

53)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28.

54) 원문에는 月과 冬이 합쳐진 ‘月冬’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脾’가 맞아 교정했다.

55) 여기서의 同上은 ‘足太陰脾’를 의미한다.

56)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39.

나온다. 手部에서 나올 때도 肺經은 肺經끼리, 大腸經은 大腸經끼리 각각의 經脈을 강령으로 삼아서 腧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上膊에서부터 손끝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나오는 순서대로 빙 둘러가면서 腧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四肢 말단부 쪽에 이르러서는 手陽明大腸經에 속하는 三間, 二間, 商陽과 手太陽小腸經에 속하는 後谿, 前谷, 少澤이 배열되어 있어 극히 부분적으로 經脈을 기준으로 배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이 腧穴들을 배열하고 있다.

中府와 雲門穴을 제외한 나머지 肺經의 9개의 腧穴은 「手部左右諸穴百廿」에 나오는데, 腧穴名은 다음과 같다.

臑會, 天泉, 天府, 臂臑, 俠白, 消灤, 五里, 清冷淵, 天井, 肘膠,

小海, 尺澤, 曲澤, 少海, 曲池, 三里, 上廉, 下廉, 孔最, 四瀆,

支正, 溫留, 郄門, 偏歷, 三陽絡, 會宗, 支溝, 間使, 外關, 內關,

列缺, 靈道, 通里, 養老, 陽池, 陽谿, 陽谷, 腕骨, 經渠, 陰郄,

太淵, 大陵, 神門, 勞宮, 合谷, 魚際, 少商, 三間, 二間, 商陽,

後谿, 前谷, 少澤, 中渚, 腋門, 關衝, 中衝, 少府, 少衝⁵⁷⁾.

이 중에서 手太陰肺經에 속한 수혈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혈의 명칭과 개수, 위치,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 소속 경맥, 주치증을 기술하고 있다.

天府二穴：在腋下三寸，臂臑內廉動脈。禁不可灸，刺入四分，留三呼。手太陰肺。主咳，上氣不得息，暴痺內逆，肝肺相數，鼻口出血，身脹，喘鳴，嗜臥不覺。

俠白二穴：在天府下去肘五寸。刺入四分，灸五壯。手太陰肺。主心痛，咳，乾嘔，煩滿。

尺澤二穴：在肘中約上動脈。有本云在肘屈大橫紋中。刺入三分，留三呼，灸三壯。手太陰肺。主心

痛，肘痛，喉痺，咳逆上氣，舌乾，脇痛，肩背寒，少氣，腹脹，手不伸。

孔最二穴：在腕上七寸。刺入三分，灸五壯。手太陰肺。可以出汗，頭痛，振寒，臂厥，熱汗不出。

列缺二穴：在腕上一寸半。刺入三分，留三呼，灸五壯。手太陰肺。主癰寒甚熱，痲驚，咳唾沫，掌中熱，肘，臂，肩，背寒，口沫，四肢腫。

經渠二穴：在寸口陷者中，注云從關至魚一寸，故曰寸口。刺入三分，留三呼，不可灸。手太陰肺。主寒熱胸背急痛，喉中鳴，咳上氣，數欠

太淵二穴：在手掌後陷者中。刺入二分，留二呼，灸三壯。手太陰肺。主痺，逆氣寒厥，急熱煩心，善唾，噦，噫，胸滿脹滿，轉筋，口噤。

魚際二穴：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刺入二分，留三呼，灸三壯。手太陰明大腸⁵⁸⁾。主虛熱，惡風，舌上黃，身熱，頭痛，陰濕，肘攣，心痛，陰痿，肩背寒

少商二穴：在手大指端內側，去爪甲角如韭葉。刺入一分，留一呼，灸一壯。手太陰肺。主癰寒厥及熱煩口，善噦，心滿，手臂不仁，唾沫，唇乾，食飲不下⁵⁹⁾。

(3)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醫心方』은 手太陰肺經의 腧穴들을 기술할 때, 체간의 中府와 雲門穴을 「胸部諸穴四十三」 중 「四行左右十二穴」부분에서 기술하였고, 팔에 있는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9개 腧穴은 「手部左右諸穴百廿」 항목 아래에 經脈과 별 연관관계 없이 배열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 침구 서적의 어떤 서적과도 동일하지 않은 수혈 배열 체제로, 丹波康賴가 독자적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부위별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58) 手太陰肺도 아니고, 手陽明大腸도 아니고 표현이 불분명한데, '手太陰肺'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醫心方』의 수혈 위치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鍼灸甲乙經』과 비슷한데, 『鍼灸甲乙經』에는 "魚際者，火也。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中，手太陰脈之所溜也。爲榮。刺入二分，留三呼，灸三壯。"이라고 하여 手太陰肺經임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黃龍祥 校注.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173.

59)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p.33-35.

57)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p.33-35.

이와 같은 부위별 서술은 알고자하는 수혈을 부위별로 빨리 찾을 수 있다는利點은 있으나,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반영된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⁶⁰⁾.

6) 『太平聖惠方』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太平聖惠方』(992년)은 北宋의 翰林醫官院인 王懷隱 등이 민간의 유효한 처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北宋 이전의 각종 方書에서 관련 내용을 집성하여 편찬한 方書로 略稱하여 『聖惠方』이라고도 하며 전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99에 腧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권99는 크게 「鍼經序」와 「具列一十二人形共計二百九十穴」로 나누어져 있다.

「鍼經序」에는 『靈樞·脈度』를 인용한 手足 三陰三陽經脈의 起始부위와 終止부위, 계절에 따른 자침법, 『靈樞·本輸』를 인용한 12경맥의 井榮輸經合, 迎隨에 따른 調氣방법, 虛實에 따른 補瀉방법, 많이 醉했거나 많이 飢로하거나 많이 飽고프거나 많이 갈증이 나거나 등 『素問·刺禁論』을 인용한 刺鍼을 禁해야 되는 사람, 『靈樞·九鍼論』을 인용한 九鍼의 이름, 『素問·寶命全形論』을 인용한 治神의 중요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具列一十二人形共計二百九十穴」에는 12개의 「明堂圖」⁶¹⁾가 나오고 총 290개의 腧穴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千金要方』의 「三人明堂圖」체제를 계승하여 「正人明堂圖」가 4개, 「伏人明堂圖」가 4개, 「側人明堂圖」가 4개 나온다.

그림과 아울러 腧穴 이름과 개수, 위치, 脈氣所發, 主치증, 鍼刺 방법, 禁忌 등이 서술되어 있다.

60) 이에 대하여 篠原孝市는 “침구의 입상에서는 시대의 潮流에 맞게 인체의 全體觀을 상실하고 특효혈 치료와 같은 것에 빠져 經絡說은 언제나 무시되어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鍼灸의臨床では時代どともに人体の全體觀をたえず喪失して特效穴治療といった治療におちいって行くことが多く,そのため經絡說はたえず無視され解体されていく傾向にあった).”고 했다.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編集. 解題·研究·索引(東洋醫學善本叢書8).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163.

61) 『太平聖惠方』에는 실제로 「三人明堂圖」, 「正人明堂圖」, 「伏人明堂圖」, 「側人明堂圖」라는 명칭이 나오지는 않으나, 12人形圖가 앞, 뒤, 옆 각각 4개씩 나오므로 편의상 이름을借用하여 설명하였다.

(1) 中府와 雲門穴의 배열

권 99에 나오는 12개의 그림 중에서 雲門穴은 「正人明堂圖」중 첫 번째 그림(그림 262, 363) 참조)과 함께 서술되어 있으나, 中府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 그림과 함께 서술된 腧穴名과 雲門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上星, 顙會, 前頂, 百會, 天突, 璇璣, 華蓋, 紫宮, 玉堂, 璪中, 巨骨, 雲門, 少商, 魚際⁶⁴⁾.

雲門二穴：在巨骨下氣戶兩傍，各二寸陷中，動脈應手舉臂取之。山桃經云，在人迎下第二首間，相去二寸三分。是穴足太陰脈氣所發。治嘔逆氣上，胸脇微背痛，通灸禁針。理肺同藥療之。甲乙經云，針入七分。灸五壯。針若深，令人氣逆⁶⁵⁾。

『太平聖惠方』에서 「正人明堂圖」중 첫 번째 그림과 함께 기술되고 있는 雲門穴은 지금의 雲門穴의 위치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巨骨을 肩胛骨頭가 아닌 心脾骨頭로 보고 雲門穴을 取穴했기 때문이다.

『太平聖惠方』에 나타난 「明堂圖」를 통해 기존에 傳來되어 오는 「明堂圖」가 많이 부실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⁶⁶⁾.

62) 「正人明堂圖」4개 중 첫 번째 그림에 雲門穴이 나오는데, 현재의 위치와 많이 다르다. 또한 다른 판본인 그림 3에서 巨骨穴을 중심으로 양옆에 雲門穴이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雲門穴에 대한 설명에서 ‘在巨骨下氣戶兩傍’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人形의 오른쪽에 있는 巨骨 표기와 가운데에 있는 雲門 표기가 뒤바뀐 것으로 사료된다.(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3173.)

63) 『太平聖惠方』의 다른 판본인 이 책에서는 雲門穴이 巨骨穴 양옆에 위치해 있다. 또한 任脈線上的 璇璣와 紫宮이 그림 2와 달리 가슴중앙선에 배열되어 있지 않고 중심선에서 벗어나 위치해 있는 등 실제 위치 설명과 들어맞지 않아 「明堂圖」 자체의 質이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卷99(中國古代醫方真本秘本全集 戰國-宋元時期 卷31).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p.6472.)

64)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 3173-3177.

65)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3175.

66) 기존 明堂圖의 문제점에 대해서 『千金要方』에서는 “舊明堂圖, 年代久遠, 傳寫錯誤, 不足指南(옛 明堂圖는 연대가 오래되어 전하여 베길 때 착오가 있으므로 지침이 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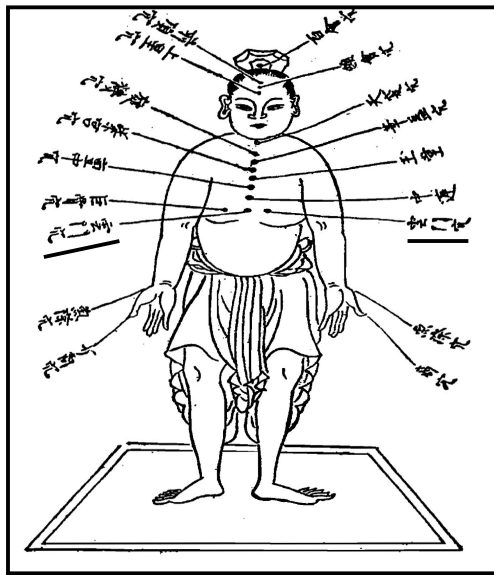


그림 2. 『太平聖惠方』에 기재된 雲門穴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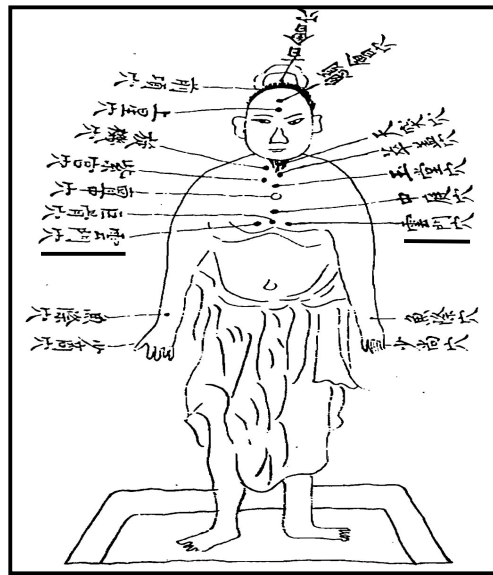


그림 3. 『太平聖惠方』의 다른 판본에 기재된 雲門穴의 위치

(2)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肺經 腧穴의 배열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나머지 腧穴들 중에서 俠白, 尺澤, 太淵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天府는 「側人明堂圖」의 두 번째 그림(12人形 중에서는 열 번째)과 함께 서술되어 있고, 孔最, 列缺, 經渠는 「側人明堂圖」의 세 번째 그림(12人形 중에서는 열한 번째)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또한 魚際, 少商은 雲門이 서술된 「正人明堂圖」의 첫 번째 그림(12人形 중에서는 첫 번째)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부족하다.”이라고 하였고(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08.) 『千金翼方』에서는 “余退以『甲乙』校, 秦丞祖圖有旁庭臟會等一十九穴, 按六百四十九穴有目無名, 其角孫景風一十七穴, 『三部針經』具存焉. 然其圖缺漏, 仍有四十九穴, 上下倒錯, 前後易處, 不合本經, 所謂失之毫厘, 差之千里也.(내가 물러나 甲乙經과 비교해보니, 秦丞祖의 그림에는 旁庭, 臟會 등 19穴이 있는데, 按건대, (甲乙經에 있는) 649穴에는 목록은 있으나 이름이 없고, 角孫과 景風 등 17穴은 三部針經에는 모두 있다. 그러나, 그 그림에는 흠이 있고, 누락이 되어있다. 그리고, 49穴이 있는데, 위아래가 뒤바뀌고, 앞뒤가 바뀌어 本經과 합치되지 아니하니 이른바 가는 털만한 실수는 결국 큰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했다.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p.396-397.

角孫, 耳門, 聽會, 天牖, 天府, 曲澤, 少海, 巨虛上廉, 條口, 巨虛下廉, 承山, 上崑崙, 下崑崙⁶⁷⁾

聽宮, 缺盆, 孔最, 列缺, 經渠, 少衝, 勞宮, 髀關, 梁丘, 隱白, 承筋, 陽蹻, 陰蹻⁶⁸⁾

上星, 顙會, 前項, 百會, 天突, 璇璣, 華蓋, 紫宮, 玉堂, 膻中, 巨骨, 雲門, 少商, 魚際⁶⁹⁾

天府二穴：在兩腋下三寸宛宛中，是穴，手太陰脈氣所發。主理頭眩目暈，遠視眈眈。鍼入四分，留七呼，灸二七壯，不除，灸至一百壯罷，出明堂經，其甲乙經中，禁不可灸，灸即使人逆氣也。⁷⁰⁾

孔最二穴：在腕上七寸，是穴，手太陰郄。治熱病汗不出，吐血失瘖，腫痛惡血，鍼入三分，灸之亦得。

列缺二穴：去腕側上一寸半，交叉頭，兩筋兩骨罅宛宛中，是穴。手太陰絡，主療偏風，口喎，半身不遂，鍼入三分，留三呼，瀉五吸，灸亦得。

67)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 3196-3198.

68)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 3198-3201.

69)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 3173-3177.

70)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 3196-3197.

日灸七壯, 若患偏風, 灸至一百, 若患腕勞, 灸至七七. 慎熱食注麩生冷.

經渠二穴者: 金也, 在寸口中陷者中, 是穴. 手太陰脈之所行爲經也. 主瘧, 寒熱, 胸背急, 胸中膨脹痛, 喉痺, 掌中熱, 生咳逆上氣, 喘數久熱, 病汗不出, 暴痺喘逆, 心痛欲嘔, 鍼入二分, 留三呼, 不可灸, 灸即傷人神⁷¹⁾.

少商二穴者: 木也,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白肉際, 宛宛中是也, 手太陰脈之所出爲井也. 鍼入一分, 主不能食, 腹中氣滿, 喫食無味, 留三呼, 瀉五吸, 宜鍼不宜灸, 以三稜鍼刺之, 令血出, 勝氣鍼, 所以勝氣鍼者, 此脈脹脹之候, 腮中有氣, 人不能食, 故刺出血, 以宣諸臟脹也, 慎冷熱食.

魚際二穴者: 火也, 在手大指節後, 內側散脈中, 是穴. 手太陰之所流爲營也, 主虛熱, 洒洒毛豎, 惡風寒, 舌上黃, 身熱欬嗽, 喘痺走背胸不得息, 頭痛甚, 汗不出, 熱煩心, 少氣不足, 以濕陰痒, 腹痛, 不下食飲, 肘攣支滿, 喉中焦乾, 濁壅上氣, 熱病寒慄, 鼓腹脹滿, 陰痿, 色不變, 肺心痛, 欬引尻, 溺出, 膈中虛, 食飲嘔, 身熱汗出, 唾嘔吐血, 目泣出, 短氣, 心痺悲怒逆氣, 在腸胃氣逆也, 鍼入二分⁷²⁾.

(3)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太平聖惠方』에서는 手太陰肺經의 체간에 있는 수혈 중 中府穴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고, 雲門穴은 『正人明堂圖』 중 첫 번째 그림에 나온다.

팔에 위치한 手太陰肺經의 나머지 9개의 腧穴들 중에서 俠白, 尺澤, 太淵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天府는 『側人明堂圖』 중 두 번째 그림에, 孔最, 列缺, 經渠는 『側人明堂圖』 중 세 번째 그림에, 魚際, 少商은 『正人明堂圖』 중 첫 번째 그림에 나온다.

이와 같이 手太陰肺經이라는 동일 계열의 腧穴이

『三人明堂圖』라는 기준에 맞추느라 散在되어 기술됨으로써 經脈중심의 계통성이 떨어져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사고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太平聖惠方』은 『千金要方』처럼 『三人明堂圖』를 수혈 배열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차이점이 존재한다. 『千金要方』이 『三人明堂圖』 내에서 部位와 經脈을 소제목으로 내세워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면, 『太平聖惠方』은 같은 기준을 取하고는 있으나, 頭部, 胸部, 四肢부위의 수혈이 소제목도 없이 함께 서술되거나 동일 經脈의 수혈이 여러 그림에 흩어져 있는 등 혼란한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太平聖惠方』 12人形圖에 표기된 雲門穴을 포함한 腧穴 표기의 방식을 관찰해 본 결과 기준에 傳來되어 오는 『明堂圖』가 많이 부실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 연결된 문헌

1) 『黃帝內經明堂』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黃帝內經明堂』⁷³⁾(대략 666~683년)은 楊上善이 지은 鍼灸 서적이다. 『黃帝內經明堂』이나 『黃帝內經太素』卷 시작 부분에 ‘通直郎守太子文學’이라고 하여 楊上善의 직책이 나와 있으나, 여기서는 楊上善이 隋나라 때 太醫侍御⁷⁴⁾를 지냈다는 徐春甫와 李謙의

73) 이 책은 753년 鑒眞和尚이 日本으로 갈 때 『黃帝內經太素』 30권과 함께 가지고 가서 日本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893년 秘閣인 洽然院에서 화재가 나서 藏書들이 많이 불타 없어지게 되어, 조정에서는 남아 있는 책의 목록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藤原佐世에게 칙명을 내려 『日本國見在書目錄』을 작성하게 했는데, 그 중에 『黃帝內經明堂』 1권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보여, 893년 洽然院 화재로 13권이었던 『黃帝內經明堂』이 대부분 유실되고 1권만 남겨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日本 永觀 2년(984년)에 丹波康賴가 지은 『醫心方』 30권 중 권2에는 鍼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 내용의 일부가 이 책 속에 남겨져 보존되었다. 중국에서는 宋나라가 杭州로 천도한 후에 이 책이 없어져 연구되지 못하다가, 19세기 말에 黃以周가 日本에서 永仁本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돌아와 1897년에 袁昶이 『太素』를 새길 때, 『太素』 뒷부분에 『黃帝內經明堂』을 덧붙이고, 『黃帝內經明堂叙』를 썼다.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913.

74) 徐春甫 編集, 崔仲平, 王耀廷 主校. 古今醫統大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2. “大業中爲太醫侍御,

71)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3200.

72)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 3175-3177.

기재⁷⁵⁾를 근거로 太醫侍御 쪽에 비중을 두고 서술 하겠다. 왜냐하면 『黃帝內經太素』나 『黃帝內經明堂』은 『黃帝內經』과 『黃帝明堂經』의 주석서로써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⁷⁶⁾인데, 太醫侍御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醫籍을 정비하고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楊上善은 3권으로 되어 있던 『黃帝明堂經』⁷⁷⁾의 編制를 改編하고 주석을 추가하여 12正經 12권과 奇經 八脈 1권을 합쳐 13권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부위별 腧穴 배열을 같은 經脈끼리 종류별로 묶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黃帝內經明堂類成』이라고도 한다. 現存하는 『黃帝內經明堂』의 판본은 永仁本, 永德本, 文永本(尊經閣本) 3가지⁷⁸⁾가 있다.

楊上善은 手太陰肺經의 腧穴들을 기술할 때, 기존의 『鍼灸甲乙經』, 『千金要方』, 『千金翼方』에서 中府와 雲門穴을 中府와 雲門穴 이외의 팔에 있는 나머지 腧穴들과 분리시켜 기술한 것과 달리, 『靈樞·經脈』에 나오는 流注路線에 맞추어 胸部에 있는 中府穴을 팔에 있는 나머지 肺經의 腧穴들과 함께 手太陰肺經 항목에서 기술했다. 이는 기존의 腧穴 서술방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黃帝內經明堂』의 내용을 살펴 보면서 楊上善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차별화된 서술을 해낼 수 있었는지를 論하겠다.

다음은 『黃帝內經明堂』의 권1에 나오는 手太陰肺經에 대한 본문으로 총론에 해당한다.

肺藏에서 폐의 무게는 세 근 세 냥이며, 여섯 개의 잎과 두 개의 귀로 구성되어 무릇 여덟 개의 잎이며 魄을 저장하는 것을 호한다. 肺에는 작고 큰 것과 위치가 높고 낮은 것과 단단하고 취약한 것과 端正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등의 다름이 있다. 肺가 작으면 적게 마시고 숨이 가쁠 때 울부짖듯 큰소리가 나는 喘鳴의 병을 앓지 않으며, 폐가 크면 많이 마시고 胸痺, 喉痺, 逆氣의 병에 잘 걸린다. 肺의 위치가 높으면 上氣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기침을 하고자 하며, 肺의 위치가 낮으면 膺門 부위에 있으면서 肝을 압박하여 옆구리 아래쪽에 통증을 잘 일으킨다. 肺가 단단하면 기침이나 上氣의 병증을 앓지 않고, 肺가 취약하면 消瘵에 잘 걸려 쉽게 상한다. 肺가 端正하면 和利하여 손상되기가 어렵고, 肺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흉부의 한쪽이 아프다. 피부가 흰색이고 腠理가 섬세한 사람은 肺가 작고, 腠理가 거친 사람은 肺가 크며, 어깨가 거대하여 가슴부위가 뒤집어지고 이후 부위가 함몰된 사람은 肺의 위치가 높고, 저드랑이 부위는 함하여져 좁아졌으나, 옆구리 부위가 확장된 경우에는 肺의 위치가 낮으며, 항상 어깨와 등의 부위가 두터울 경우에는 肺가 단단하고, 어깨와 등의

名著當代, 稱神. 診療出奇, 能起沈疴篤疾, 不拘局方, 述『內經』爲『太素』, 知休咎.”

75)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正, 王洪圖, 李雲 重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p.7. “據李謙『醫史』, 徐春甫『醫統』, 并云楊上善隋大業中爲太醫侍御, 述『內經』爲『太素』.”

76) 馬繼興은 그의 책에서 楊上善의 『太素』 주석본과 『明堂』 주석본은 모두 官修國定本이라고 하였다.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97.

77) 『黃帝明堂經』은 현재 알려진 최초의 침구 전문서로 편찬한 사람은 알 수 없으며 대략 秦漢 때에 완성되었다. 원서는 전하지 않는데, 魏晉 이후로 여러 명칭의 傳本과 주석본이 생겼다. 주로 『明堂孔穴鍼灸治要』(후에 『鍼灸甲乙經』 중에 輯錄됨) 및 『黃帝內經明堂類成』에 기재되어 있다 (東洋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東洋醫學大事典 1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503.).

78) 첫째는 永仁 4년(1296년)에 丹波長高에 의해 抄寫된 永仁本이고, 둘째는 永德 3년(1383년)에 丹波長高의 後人인 某氏에 의해 抄寫된 永德本이며, 셋째는 文永 元年(1264년)에 和氣種成에 의해 抄寫된 文永本(前田育德會의 尊經閣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尊經閣本’이라고도 한다.)이다. 永仁本과 永德本은 序文中에서 缺字와 蝕字가 나타나나, 文永本은 缺損된 文字가 나타나지 않아 이 셋 중에서 가장 좋은 善本으로 꼽힌다.

永仁本과 永德本은 일본의 東洋醫學研究會에서 1981년에 출판한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仁和寺本) 黃帝內經太素(下)·黃帝內經明堂(東洋醫學善本叢書3).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p.463-560.’에 수록되어 있고, 文永本(尊經閣本)은 北里研究所附屬東洋醫學總合研究所에서 1992년에 小品方과 함께 컬러로 影印하여 출판한 ‘北里研究所附屬東洋醫學總合研究所 醫史文獻研究室 編. 『小品方·黃帝內經明堂』 古鈔本殘卷. 東京. 北里研究所附屬東洋醫學總合研究所. 1992. pp.22-27.’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序文과 手太陰肺經만 남아있는 『黃帝內

經明堂』에 대한 輯復 노력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1983년에 小曾戶丈夫는 ‘黃帝內經明堂仁和本復元試案例’를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후학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이어져 그 결실이 1999년 『黃帝內經明堂』 輯復으로 맺어졌다. 錢超塵 主編. 黃泰康, 李經緯 [共] 主審. 中華經典醫書(第三集 古佚醫書覆刊 中 黃帝內經明堂輯復).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p.269-390.

부위가 얇을 경우에는 肺가 취약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가 두터울 경우에는 肺가 단정하고, 옆구리의 한쪽이 성길 경우에는 肺가 한쪽으로 치우쳐있다⁷⁹⁾.

이 부분에서는 肺의 무게와 형상 및 藏하는 神, 肺의 大小, 高下, 堅脆, 端正, 偏傾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 피부색, 腠理의 상태, 어깨와 가슴 등의 외부적인 골격으로 알 수 있는 肺의 형상에 대해 기술하였다⁸⁰⁾.

그 오행은 金이며, 그 색깔은 흰색이며, 그 시기는 가을이며, 그 맛은 매운 것이며, 그 날은 庚辛日이며, 그 뜻은 근심걱정이며, 그 氣는 하늘이며, 그 흡은 商이며, 그 소리는 낫하는 것이며, 그 영양하는 것은 털이며, 그 주관하는 것은 皮毛며, 그 液은 콧물이며, 그 구멍은 코이며, 그 가축은 말이며, 그 곡식은 벼이며, 그 별은 太白星이며, 그 數는 9이며, 그 변동은 기침하는 것이며, 그 싫어하는 것은 寒이며, 그것이 이기는 것은 肝이며, 그것이 생하는 것은 腎이며, 그 냄새는 비린내이며, 그 과실은 복숭아이며, 그 야채는 파이며, 그 脈은 毛脈이며, 그 경맥은 手太陰이다. 후은 오른손의 太陰을 주관하고, 壬은 왼손의 太陰을 주관하며 陰이 커서 太陰이라고 한다⁸¹⁾.

이 부분에서는 肺가 속한 五行, 色, 時, 味, 日, 志, 氣, 音, 聲, 榮, 主, 液, 竅, 畜, 穀, 星, 數, 變動, 惡, 克, 生, 臭, 果, 菜, 脈, 經脈과 十干에 따른 肺經의 左手와 右手의 배치에 대해 기술하였다⁸²⁾.

手大主의 脈은 中焦에서 일어나며, 아래로 大腸에 絡하고, 되돌아와 胃口를 빙빙 돌며, 횡경막의 위로 가서 肺에 屬하고, 肺系로부터 옆으로 거드랑이 아래로 나와 아래로 上膊의 안쪽을 따라 手少陰心經과 手厥陰心包經의 앞쪽을 순행하며, 주관절의 가운데로 하행하고, 橈骨의 아래 모서리를 따라 寸口로 들어가서 魚腹의 위로 갔다가 魚際를 순행하고, 엄지손가락의 끝으로 나온다. 그 가지는 손목의 뒤쪽으로부터 둘째손가락의 안쪽모서리로 곧장 나오며 그 끝에서 나온다. 그 脈은 손으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3尺 5寸이며 관찰하는 穴은 中府, 天府, 俠白, 尺澤, 孔最,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 등 10개이다⁸³⁾.

이 부분에서는 肺經의 流注路線 및 肺經의 從手至胸의 길이와 肺經에 속하는 수혈의 총 개수에 대해 기술하였다⁸⁴⁾.

이것은 楊上善이 腧穴에 대한 정보만 단순히 서술하지 않고, 『內經』이나 『難經』등에 나타난 경락과 장부의 有關 이론을 腧穴 서술 이전에 제시함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주지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其行金’부터 ‘其經脈手太陰’에 걸쳐 나오는 肺의 여러 가지 속성은 『內經』의 여러 편에 散在되어 나오는 내용을 楊上善이 다시 편집하여 정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素問·金匱真言論』에는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故病在背. 其味辛, 其類金, 其畜馬, 其穀稻, 其應四時, 上爲太白星, 是以知病之在皮毛也, 其音商, 其數九, 其臭腥.”⁸⁵⁾이 나오는데, 楊上善은 이 내용 중에서 ‘西方白色’을 ‘其色白’으로, ‘開竅於鼻’를 ‘其竅鼻’로, ‘其味辛’을 ‘其辛味’로, ‘其類金’을

堉書房. 2005. p.155.

83)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5. “手大主之脈起於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屬肺, 從肺系橫出掖下, 下循膈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 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 出其端. 其脈從手至胸中, 三尺五寸, 管穴十. 中府, 天府, 俠白, 尺澤, 孔最,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

84) 小曾戶洋 著. 中國醫學古典と日本: 書誌と伝承. 東京. 堉書房. 2005. p.155.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

79)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4. “肺藏, 肺重三斤三兩, 六葉兩耳, 凡八葉, 主藏魄. 肺有大小, 高下, 堅脆, 端正偏傾不同. 肺小則少飲, 不病喘鳴. 肺大則善病胸痺, 喉痺逆氣. 肺高則上氣, 肩息欲咳, 肺下則居賁迫肝, 善脇下痛. 肺堅則不病咳上氣, 肺脆則善病消痺, 易傷也. 肺端正則和利難傷也, 肺偏傾則胸偏痛. 白色小理者肺小, 粗理者肺大. 巨肩反膺陷喉者肺高, 合腋張脇者肺下, 好肩背厚者肺堅, 肩背薄者肺脆, 好肩膺者肺端正, 脇偏狹者肺偏傾也.”

80) 小曾戶洋 著. 中國醫學古典と日本: 書誌と伝承. 東京. 堉書房. 2005. p.155.

81)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704-705. “其行金, 其色白, 其時秋, 其辛味, 其日庚辛, 其志憂, 其氣天, 其音商, 其聲哭, 其榮毛, 其主皮毛, 其液涕, 其竅鼻, 其畜馬, 其穀稻, 其星大白, 其數九, 其變動咳, 其惡寒, 其克肝, 其生腎, 其臭腥, 其菓桃, 其菜葱, 其脈毛, 其經脈手太陰. 辛主右手之太陰, 壬主左手之太陰. 以陰太, 故曰太陰.”

82) 小曾戶洋 著. 中國醫學古典と日本: 書誌と伝承. 東京.

‘其行金’으로, ‘上爲太白星’은 ‘其星大白’으로, ‘是以知病之在皮毛也’는 ‘其主皮毛’로, ‘其畜馬’, ‘其穀稻’, ‘其音商’, ‘其數九’, ‘其臭腥’은 똑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西方生燥, 燥生金, 金生辛, 辛生肺, 肺生皮毛, 皮毛生腎, 肺主鼻. 其在天爲燥, 在地爲金, 在體爲皮毛, 在藏爲肺, 在色爲白, 在音爲商, 在聲爲哭, 在變動爲欬, 在竅爲鼻, 在味爲辛, 在志爲憂. 憂傷肺, 喜勝憂, 熱傷皮毛, 寒勝熱, 辛傷皮毛, 苦勝辛.”⁸⁶⁾이 나오는데, 楊上善은 이 내용 중에서 ‘皮毛生腎’은 ‘其生腎’으로, ‘在地爲金’은 ‘其行金’으로, ‘在體爲皮毛’는 ‘其主皮毛’로, ‘在色爲白’은 ‘其色白’으로, ‘在音爲商’은 ‘其音商’으로, ‘在聲爲哭’은 ‘其聲哭’으로, ‘在變動爲欬’는 ‘其變動咳’로, ‘在竅爲鼻’는 ‘其竅鼻’로, ‘在味爲辛’은 其辛味(其味辛)로, ‘在志爲憂’는 ‘其志憂’로 한 것으로 보인다.

楊上善이 이렇게 肺藏이 지닌 金의 속성을 『內經』을 인용하여 색깔, 계절, 맛, 날짜, 소리, 九竅, 가축, 곡식, 별, 숫자, 냄새, 과일, 채소 등에 나타난 다양한 金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을 서술한 것은 경락과 장부의 연관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총론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뒤에는 각론으로 들어가 腧穴의 이름, 별칭, 위치,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 주치증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中府者, 肺募也, 一名膺中輸. 在雲門下一寸, 乳上三肋間, 動脈應手陷者中. 手足太陰之會, 刺入三分, 留五呼, 灸五壯. 主肺系急咳, 胸中痛, 惡清, 胸中滿, 色色然. 善嘔食, 胸中熱, 喘逆, 逆氣相迫逐, 多濁唾, 不得息, 肩背風, 汗出面, 腹腫, 膈中不下食, 喉痺, 肩息肺脹, 皮膚骨痛, 寒熱, 煩滿.

天府, 在掖下三寸, 臂臑內廉動脈, 手太陰脈氣所發. 禁不可灸, 使人逆氣. 主咳, 上氣不得息, 暴痺, 內逆, 肝肺相搏, 鼻口出血, 此胃大輸, 身脹,

逆息, 不得臥, 風汗出, 身腫, 喘喝多唾, 恍惚善忘, 嗜臥不覺.

俠白, 在天府下, 去肘五寸動脈, 手太陰別. 刺入四分, 灸五壯. 主心痛, 咳, 乾嘔煩滿.

入于尺澤, 爲合, 水也. 在肘中約上動脈. 刺入三分, 留三呼, 灸三壯. 主心膨痛, 肘痛喉痺, 咳逆上氣, 舌乾脇痛, 心煩滿, 肩背寒, 心亂, 少氣不足以息, 腹脹喘, 振慄癢癢, 手不伸, 脫肉唾濁, 氣隔善嘔, 鼓額不得汗, 煩急身痛, 目鳴縱, 衄, 左室刺右, 右室刺左. 兩脇下痛, 洩上下出, 胸滿短氣不得汗, 補手太陰, 以出其汗, 癰疾, 手臂不得上頭.

孔最, 手太陰郄, 在腕上七寸, 專金, 金九, 水之父母, 刺入三分, 灸五壯. 可以出汗, 頭痛振寒, 臂厥, 熱汗不出.

列缺, 手太陰絡, 去腕(腕)上一寸五分, 別走陽明者. 刺入三分, 留三呼, 灸五壯. 主瘧寒甚熱, 癰驚, 而有見者, 并取陽明絡. 寒熱, 咳唾沫, 掌中熱, 虛則肘臂肩背寒慄, 少氣不足以息, 寒厥, 交兩手而務, 爲口沫. 實則肩背熱痛, 汗出, 暴四支腫, 身濕搖, 時寒熱, 飢則煩, 飽則面變, 口噤不開. 惡風泣出, 善忘, 四支逆厥, 善笑, 熱病先手臂痛, 身熱溺白, 癢, 唇口聚, 鼻張, 目下汗出如轉珠, 兩乳下三寸堅, 脇下滿悸.

行於經渠, 爲經金也. 在寸口陷者中, 刺入三分, 留三呼, 不可灸, 傷人神明, 主寒熱, 胸背急痛, 喉中鳴, 咳上氣喘, 掌中熱, 數欠, 汗出, 胸中彭彭, 甚則交兩手務, 暴痺內逆, 先取天府, 此府此胃之大輸, 臂內廉痛, 喘逆, 心痛欲嘔.

注于太淵, 爲輸, 土也. 在手掌後際者中, 刺入二分, 留二呼, 灸三壯. 主痺逆氣寒厥, 急熱煩心, 善唾噦噫, 胸滿噦呼, 胃氣上痺, 逆氣心痛, 脹滿彭彭, 臂厥, 肩膈胸痛, 妬乳, 目中白眼青, 轉筋, 掌中熱, 乍寒乍熱, 缺盆中相引痛, 數欠, 喘不得息, 臂內廉痛, 上膈, 飲已煩滿, 病溫身熱, 五日以上, 汗不出, 留鍼一時取之, 未滿五日, 不可刺, 瘧咳逆攘心, 悶不得臥, 胸滿喘務, 背痛, 唾血振寒, 乾噎, 狂言, 口噤, 引而下之.

流於魚際, 爲榮, 火也. 在手大指本節後, 內側散脈. 刺入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

二分, 留三呼, 灸三壯. 主虛熱, 灑沂起毛惡風, 舌上黃, 身熱爭則喘咳, 痺走胸膈背, 不得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及陽明出血, 寒厥及熱, 煩心少氣, 不足以息, 陰濕, 腹痛食飽, 肘攣槽滿, 喉中焦渴, 瘧上氣, 熱病, 振慄鼓頰, 腹滿陰萎, 厥痛, 臥若徒居, 心痛間, 動作痛益, 色不變, 肺心痛, 咳引尻溺出, 虛也, 膈中食飲嘔, 身熱汗出, 數唾羨(涎)下, 肩背寒熱脫色, 目泣出, 皆虛也. 補之. 唾血時熱, 瀉魚際, 補尺澤, 短氣心痺, 悲怒逆氣, 恐狂易, 胃逆霍亂, 逆氣肺出少商, 爲井, 木也.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菜, 刺入一分, 留一呼, 灸一壯. 主瘧, 寒厥及熱, 煩心善嘔, 心滿而汗出, 刺出血, 立已, 寒濯濯, 寒熱, 手臂不仁, 唾沫, 唇乾引飲, 手攣攣指支, 肺脹上氣, 耳中生風, 咳喘逆, 指痺臂痛, 嘔吐, 飲食不下, 彭彭, 熱病象瘧, 振慄鼓頰, 腹脹俛仰, 喉中嘔嘔⁸⁷⁾.

楊上善은 이와 같이 체간에 있는 中府穴을 팔에 있는 肺經의 나머지 수혈들과 함께 묶어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맞추어 수혈들을 재배열하고, 散在되어 있던 수혈의 주치증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술했다.

이제부터는 수혈 배열체계에 있어서 『黃帝內經明堂』과 『鍼灸甲乙經』을 서로 비교하여 『黃帝內經明堂』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겠다. 원래 『黃帝明堂經』을 편집 또는 인용해서 『黃帝內經明堂』과 『鍼灸甲乙經』이 만들어졌는데, 『黃帝明堂經』이 전해지지 않아 수혈 배열의 체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黃帝明堂經』의 또 다른 傳本인 『明堂孔穴針灸治要』를 바탕으로 편집된 『鍼灸甲乙經』의 수혈 배열 체제가 수혈의 위치 설명과 주치증의 설명이 분리되어 수혈의 속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黃帝明堂經』의 수혈 배열 체제도 『靈樞·經脈』의 如環無端한 순환 체제가 아닌, 체간은 부위별로, 四肢는 경맥별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楊上善은 『黃帝明堂經』에 대해 “옛날에는 이 經을 만들 때 나누어 3

권으로 하였으나, 診候가 비교적 복잡하고,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이 분명하게 하기에 어렵다.”⁸⁸⁾고 평가했다. 黃龍祥도 『黃帝明堂經輯校』를 만들 때, 『鍼灸甲乙經』이 『黃帝明堂經』의 옛 모습에 더욱 가깝다⁸⁹⁾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책을 복원했다.

따라서 『黃帝明堂經』을 대신하여 『鍼灸甲乙經』과 『黃帝內經明堂』을 서로 비교해보면, 『鍼灸甲乙經』은 腧穴의 이름, 위치, 脈氣所發, 刺鍼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를 권3에서 기술하고, 主治는 권7~권12에서 病症에 따라 기술하여 하나의 腧穴이 지닌 속성을 한 눈에 파악하기에 불편했다.

一例로 太淵의 위치, 刺灸法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권3⁹⁰⁾에 나오고, 주치증은 병증별로 권7⁹¹⁾, 권8⁹²⁾, 권9⁹³⁾, 권10⁹⁴⁾, 권11⁹⁵⁾, 권12⁹⁶⁾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楊上善은 주치증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함으로써 임상에서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이 楊上善이 『黃帝內經明堂』을 만들 때,

88)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2. “舊製此經, 分爲三卷, 診候交雜, 窺察難明.” 此經은 『黃帝明堂經』을 가리킨다.

89) 黃龍祥 輯校, 王雪苔 審訂. 黃帝明堂經輯校.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p.260. “『甲乙經』傳本更近于『黃帝明堂經』舊貌.”

90)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p.129-130. “注于太淵, 太淵者, 土也. 在手掌後際者中, 手太陰脈之所注也, 爲輸. 刺入二分, 留二呼, 灸三壯.”

91)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130. “病溫身熱, 五日以上汗不出, 刺太淵, 留鍼一時, 取之. 若未滿五日, 禁不可刺也.”, “瘡癰, 取完骨及風池, 大杼, 心俞, 上竅, 譴譴, 陰郄, 太淵, 三間, 合谷, 陽池, 少澤, 前谷, 後谿, 腕骨, 陽谷, 俠谿, 至陰, 通谷, 京骨皆主之.”

92)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130. “臂厥, 肩膈胸痛, 目中白眼青, 轉筋, 掌中熱, 乍寒乍熱, 缺盆中相引痛, 數欠, 喘不得息, 臂內廉痛, 上膈, 飲已煩滿, 太淵主之.”

93)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130. “痺逆氣, 寒厥及熱煩心, 善唾, 噦噫, 胸滿噦呼, 胃氣上逆, 心痛, 太淵主之”, “欬逆, 煩悶不得臥, 胸中滿, 喘不得息, 背痛, 太淵主之.”

94)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130. “痺, 會陰及太淵, 消灑, 照海主之.”

95)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130. “狂言, 太淵主之”, “唾血, 振寒, 噎乾, 太淵主之.”

96)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130. “口僻, 刺太淵, 引而下之”, “妬乳, 太淵主之.”

87)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p.705-719.

분리 서술된 수혈의 갖가지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모인 腧穴의 정보들을 다시 經脈이라는 큰 틀을 綱領으로 삼아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맞추어 재배열함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관계하에 수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⁷⁾.

이 외에도 楊上善은 各論에서 각각의 수혈의 본문에 注를 달 때 주안점을 둔 것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腧穴의 이름 풀이(釋名)이고, 둘째는 수혈 주치증의 病機를 설명할 때, 『內經』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以經釋經’의 혼고학적인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수혈의 이름 풀이와 관련되어 논의해 보자면, 手太陰肺經의 수혈 10개 중 中府, 天府, 俠白, 少商의 이름 풀이가 肺藏의 오행속성인 金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준다.

첫째, 中府에 대해 楊上善은 “‘府’는 모여 든다는 뜻으로, 脾와 肺 두 氣가 이 혈자리에 모이므로 中府라고 한다.”⁹⁸⁾라고 注를 달았는데, 肺와의 연관성은 ‘中’에 있다. 왜냐하면 中府의 별칭이 膺中輸로 ‘中’은 바로 肺가 위치한 흉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둘째, 天府에 대해 楊上善은 “폐는 위쪽의 덮개로 六府와 五藏의 하늘이 되고, 肺氣가 이 혈자리로 들어가므로 일컬어 天府라고 한다.”⁹⁹⁾라고 注를 달았는데, 肺와의 연관성은 ‘天’에 있다. 왜냐하면 ‘天’이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듯 肺藏도 五藏六府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셋째, 俠白에 대해 楊上善은 “‘白’은 肺의 색으로 이 혈자리는 팔에 있고 폐(肺)를 끼고 양쪽에 있으므로 俠白이라고 명명했다.”¹⁰⁰⁾라고 注를 달았는데, ‘白’은

肺의 색이라고 직접적으로 그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넷째, 少商에 대해 楊上善은 “手太陰脈은 肺로 귀속되는데, 肺는 가을을 주관하고 脈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少商이라고 한다.”¹⁰¹⁾라고 注를 달았는데, 여기서 ‘商’은 ‘金音’이기에 그 연관성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楊上善은 수혈의 이름을 풀이할 때도 肺藏과의 연관성을 지어 이름을 풀이함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楊上善은 또한 腧穴 주치증의 病機를 注에서 설명할 때 『內經』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以經釋經’의 혼고학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中府가 다스리는 주치증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肺系急咳’의 病機를 자신의 注에서 설명할 때, 『素問·咳論』에 나온 ‘咳’의 病機를 인용¹⁰²⁾하였다.

‘咳’는 거슬러 오르는 氣이다. 五藏六府에는 모두 咳가 있어 咳에는 열한 가지가 있는데, 肺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로써 肺는 皮毛와 습하므로 邪氣가 이르면 皮毛가 먼저 받는다. 찬 것을 마시면 먼저 胃에 들어가는데, 肺脈은 胃를 돌므로 寒氣는 肺脈을 찾아 위로 肺에 注하니 곧 內邪가 된다. 皮毛가 사기를 받으면 곧 外邪가 된다. 內외의 邪氣가 肺속에 머무르므로 곧 肺咳가 된다. 肺咳가 오래되면 곧 大腸으로 傳해지는데, 만약에 邪氣가 봄기운을 올라타면 肝이 먼저 받고, 만약에 여름 기운을 올라타면 心이 먼저 받으며, 만약에 至陰을 올라타면 脾가 먼저 받고, 만약 겨울 기운을 올라타면 腎이 먼저 받는다. 그러므로 五藏六府의 咳는 모두 肺를 근본으로 삼으며, 五藏六府의 咳의 증상은 太素에서 말한 것과 같다¹⁰³⁾.

97) 이것은 그가 『黃帝內經太素』 저술을 통해 『黃帝內經』의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攝生」, 「陰陽」, 「人合」, 「藏府」, 「經脈」, 「腧穴」, 「營衛氣」, 「身度」, 「診候」, 「證候」, 「設方」, 「九鍼」, 「補瀉」, 「傷寒」, 「寒熱」, 「邪論」, 「風論」, 「氣論」, 「雜病」 등 19개의 주제를 설정한 뒤, 그 주제에 맞게 『黃帝內經』을 다시 재배치하여 『黃帝內經』이 지닌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98)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5. “府, 聚也. 脾肺二氣聚於此穴, 故曰中府.”
99)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7. “肺爲上蓋, 爲府藏之天, 肺氣歸於此穴, 故謂之天府.”
100)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8. “白, 肺色也, 此穴在臂, 俠肺兩筋, 故名俠白”
101)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18. “手太陰脈, □(歸)之於肺. 肺主於秋, 脈之所起, 故謂之少商也.”
10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2. 『素問·咳論』 “黃帝問曰, 肺之令人咳, 何也. 岐伯對曰, 五藏六府皆令人咳, 非獨肺也. 帝曰, 願聞其狀. 岐伯曰, 皮毛者肺之合也, 皮毛先受邪氣, 邪氣以從其合也. 其寒飲食入胃, 從肺脈上至於肺, 則肺寒, 肺寒則外內合, 邪因而客之, 則爲肺咳.”
103)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6. “咳, 逆氣也. 五藏六府皆有咳, 故咳有十一,

이것은 『黃帝內經太素』의 楊上善注¹⁰⁴⁾와 서로 호응하는데, 楊上善이 序文에서 밝힌 바대로 “『內經』의 깊은 뜻은 『太素』로써 펼쳐 내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腧穴에 대한 연구는 『明堂』을 통해 드러내었다. 이것은 마치 天一과 地二의 관계와 같아서 또한 그 妙한 물건에 점점 통하게 된다.”¹⁰⁵⁾ 라고 했듯이 침구분야에 있어서 『太素』와 『明堂』의 관계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보여준다.

楊上善은 隋나라 때 太醫侍御를 지냈던 사람으로, 실질적 임상실천을 밑바탕으로 기존 침구서적이 수혈을 서술할 때 체간의 수혈과 四肢의 수혈을 분리하여 서술함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문제점을 개선시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楊上善은 총론에서 肺藏이 지닌 金의 속성을 『內經』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각론에서 수혈의 이름 풀이를 할 때 金의 속성과 연관시키는 등 경락의 수혈 서술에 있어서 장부의 오행 속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침구서적의 수혈 서술 방식과 다르게 『靈樞·經脈』의 流注路線, 『靈樞·逆順肥瘦』의 ‘從藏走手’에 맞추어 체간에 있는 中府穴을 팔에 있는 肺經의 나머지 수혈들과 함께 묶어 재배열하여 『靈樞·經脈』에 나타난 경락과 장부의 內外表裏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증의 病機를 『內經』을 인용하여 주석을 加하고, 散在되어 있던 수혈의 주치증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함으로써 임상에서 다양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而肺爲其本。是以肺者合於皮毛，故邪氣至，皮毛先受。寒飲先入於胃，肺脈循胃，寒氣尋肺脈上注於肺，卽爲內邪。皮毛受邪，卽爲外邪。內外之邪客於肺中，卽爲肺咳。肺咳日久，卽傳與大腸，若邪乘春，肝先受之，若乘夏，心先受之，若乘至陰，脾先受之，若乘於冬，腎先受之。故五藏六府之咳，皆以肺爲其本，五藏六府咳狀，如太素說之。”

104)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656. “肺合皮毛，故皮毛受於寒邪，內合於肺，又肺脈手太陰起胃中膈，下絡大腸，還循胃口，上兩口〔屬〕肺。寒飲寒食入胃，寒氣循肺脈上入肺中，內外寒邪相合，肺以惡寒，遂發肺欬之病也。”

105)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03. “太素陳其宗旨，明堂表其形見，是猶天一地二，亦漸通其妙物焉。”

등 이론과 임상을 일치시키려한 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자세한 고찰은 항목 ‘Ⅲ.고찰-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 연결된 의의를 중심으로’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2) 『銅人腧穴鍼灸圖經』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1) 『銅人腧穴鍼灸圖經』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銅人腧穴鍼灸圖經』(1026년)은 宋나라 王惟一이 국가의 命을 받아 옛날 서적 가운데 鍼灸와 관계된 기록 및 鍼灸圖 등을 상세하게 교정하고, 역대 의학자들의 혈자리에 관한 주장들을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鍼灸서적으로,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鍼灸甲乙經』에는 없는 ‘靑靈’, ‘厥陰俞’, ‘膏肓俞’ 등 3개의 雙穴들과 督脈의 ‘靈臺’, ‘陽關’ 등 2개의 單穴 등을 보충하여 혈자리 이름 수는 354개, 총 혈자리의 개수는 657개를 기재하고 있다¹⁰⁶⁾.

『銅人腧穴鍼灸圖經』은 크게 上中下로 나눈 뒤에 12經脈의 腧穴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卷上에서는 腧穴을 경맥별로 나누어 제시하기 전에 『黃帝內經』에 나온 經脈과 관련된 문장들을 인용하여 經脈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手足의 三陰, 三陽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다다른지와 經脈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經脈의 안쪽을 돌고 있는 營氣의 순행은 어떻게 되는지, 낮과 밤이 계속 되는 것처럼 衛氣의 순환도 쉬지 않고 일어나되 杼骨을 하나의 기점으로 삼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十二經脈氣穴經絡圖」라는 제목으로 正人, 伏人, 側人을 그려 놓고, 經脈의 流注路線을 線으로 표시한 뒤 그 起始點과 終止點을 표기해 놓았다.

이 「銅人圖」¹⁰⁷⁾(그림 4¹⁰⁸⁾ 참조)는 經穴과 經脈을

106) 李裁東, 金南一 共編. 中國 鍼灸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p.234.

107) 銅人 鑄造 후 입체적인 銅人을 바탕으로 그려진 「明堂圖」를 「銅人圖」라고 한다.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上卷. 靑島. 靑島出版社. 2003. p.59.

108) 經穴과 經脈을 종합한 그림으로, 經脈線 이외에 內臟과 骨格의 각 부분이 나타나 있다. 이 중 手太陰肺經의 流注 및 다른 경맥의 流注는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을 따르지 않고, 모두 사지 말단 부위인 井穴에서 시작하여 체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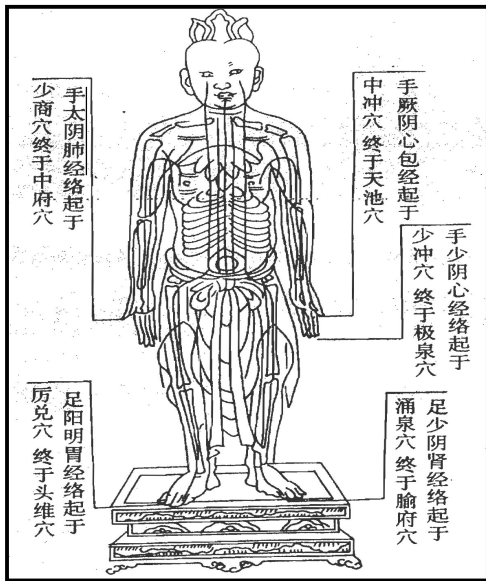


그림 4. 『銅人腧穴鍼灸圖經』의 十二經脈氣穴經絡圖 正面

종합한 그림으로, 經脈線 이외에 內臟과 骨格의 각 부분이 나타나 있다¹⁰⁹⁾. 이 중 手太陰肺經의 流注 및 다른 經絡의 流注는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을 따르지 않고, 모두 四肢 말단 부위인 井穴에서 시작하여 體간의 혈이나 또는 頭部 주위의 穴에서 끝나고 있다.

이 「銅人圖」는 기존의 침구서적이 體간의 수혈과 四肢의 수혈을 분리시켜 기술함에 따라 經脈이라는 중심점이 무색해진 문제점을 銅人鑄造¹¹⁰⁾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의 전환을 겪으며 만들어낸 「銅人圖」로써, 기존 「三人明堂圖」가 가진 불분명한 流注의

혈이나 또는 頭部 주위의 穴에서 끝나고 있다.(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上卷.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189.)

109)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441.

110) 銅人鑄造: 1027년에 혈자리를 새기고 혈자리의 이름을 명기한 두 개의 鍼灸銅人을 주조하여 교육과 시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鍼灸銅人의 내부에는 臟器가 들어 있고, 체표에는 혈자리가 찍어 있고, 혈자리 옆에는 혈자리 이름을 기록하여 혈자리를 찾기 편하게 해 놓았다. 의사 국가고시를 시행할 때, 銅人의 외부에 밀랍을 바르고 銅人의 체내에 수은을 주입하여 응시자가 取穴하여 침을 찌러 取穴한 자리가 정확하면 수은이 나오고 정확하지 않으면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李栽東, 金南一 共編. 中國 鍼灸史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pp.234-235.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楊上善이 中府穴을 팔에 위치한 肺經의 나머지 수혈들과 함께 묶어 經絡과 장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고자 한 사고방식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제시한 뒤에는 人體의 腧穴 365개가 1년 365일과 應한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는 『素問·氣穴論』의 문장¹¹¹⁾을 제시하여 앞으로 나올 腧穴의 위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鍼鍼의 이치에 있어서 經脈이 시발점이 된다.”와 “經脈은 死生을 결정하고 百病에 대처하여 虛實을 조절하므로 通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靈樞·經脈』의 문장을 인용하여 經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는 手太陰肺經에서 足厥陰肝經까지 『靈樞·經脈』의 流注路線, 是動病, 所生病, 虛實과 寒熱에 따른 治法을 기술한 뒤에 각각의 經脈에 속한 腧穴의 위치를 기술했는데, 수혈의 이름과 개수, 위치를 간단하게 기술하였고, 體간과 사지의 腧穴을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다음은 「手太陰肺經左右凡二十二穴」이다.

少商二穴: 在手大指端內側, 去爪甲角如韭葉.

魚際二穴: 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中.

太淵二穴: 在掌後陷中.

經渠二穴: 在寸口脈中.

列缺二穴: 在腕後一寸五分.

孔最二穴: 去腕上七寸.

尺澤二穴: 在肘約紋中.

俠白二穴: 在天府下, 去肘上五寸.

天府二穴: 在腋下三寸, 臂內廉.

雲門二穴: 在巨骨下, 夾氣戶旁各二寸陷中, 動脈應手, 攀臂取之.

中府二穴: 在雲門下一寸, 乳上三肋間動脈應手¹¹²⁾.

111) 『素問·氣穴論』에 나오는 “黃帝問曰, 余聞氣穴三百六十五, 以應一歲, 未知其所, 願卒聞之. 岐伯稽首再拜對曰, 窘乎哉問也. 其非聖帝, 孰能窮其道焉, 因請益意盡言其處.”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1.)를 인용하고 있다.

112) 王惟一 撰.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針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72.

이와 같이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는 手太陰肺經의 수혈을 서술함에 있어서 『靈樞·本輸』에 나타난 ‘井榮輸經合’穴의 ‘出溜注行入’하는 원리를 따라 脈氣의 원천인 井穴, 즉 少商부터 기술했다. 이것은 비록 『靈樞·逆順肥瘦』에 나타난 바와 같이 ‘從藏走手’하는 流注方向을 따르지는 않고 있으나, 체간의 수혈과 四肢의 수혈을 하나의 經脈내에서 서술함으로써 『靈樞·經脈』의 本旨인 經絡과 장부의 연관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小考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는 12經脈의 腧穴을 서술하기 전에 經脈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營衛氣의 순행은 어떠한지를 『內經』을 인용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手太陰肺經의 腧穴과 위치를 서술하기 전에 『靈樞·經脈』을 인용하여 肺經의 流注路線, 是動病, 所生病, 虛實과 寒熱에 따른 鍼灸 치료원칙을 제시하여 肺經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다.

또한 銅人주조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의 전환을 겪으며 만들어낸, 체간의 수혈과 사지의 수혈을 하나의 線으로 뚜렷하게 연결해 놓은 『銅人圖』를 제시했다. 이것은 楊上善이 中府穴을 팔에 위치한 肺經의 나머지 수혈들과 함께 묶어 經絡과 장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고자 한 사고방식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기존의 침구서적의 腧穴 서술 방식과는 다른 서술방식으로, 이런 성과를 내게 된 것은 王惟一이 국가의 命을 받고 腧穴 배열의 표준화를 위해 기존 서적들을 교정하고, 혈자리에 관한 주장들을 계통적으로 정리했으며, 銅人鑄造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의 전환을 겪으면서 이론이 실질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 『聖濟總錄』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1) 『聖濟總錄』에 나타난 肺經 腧穴의 배열

『聖濟總錄』(1111~1117년)은 宋나라 徽宗때에 조정에서 편찬한 方書로 전 20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91에서 194에 걸쳐 鍼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

는데, 기초적인 이론부터 구체적인 임상 치료법까지 망라되어 있다. 권191에서는 「骨度統論」을 통해 刺鍼하기 위해서는 먼저 骨節을 잘 알아야 하는데, 骨節에 관해서는 『內經』에서 자세한 방법을 기술해 놓지 않아 刺鍼하는 사람들이 肌肉을 傷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옛 경전을 모아 365개의 골절에 대해 論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고, 「骨空穴法」에서는 365개의 骨節에 관하여 『靈樞·骨度』와 『素問·骨空論』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하게 밝혔으며, 『經脈統論』에서는 營氣의 순행 순서, 衛氣의 순행, 邪氣의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 刺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靈樞·經脈』에 나오는 12正經의 순서를 따라 각각의 經脈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手太陰肺經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靈樞·經脈』에 나오는 手太陰肺經의 流注路線과 是動病, 所生病, 手太陰之別, 『靈樞·經筋』에 나오는 手太陰之筋, 『素問·藏氣法時論』에 나오는 肺病의 증상, 『素問·刺熱』에 나오는 肺熱病의 증상, 『靈樞·脈度』에 나오는 手太陰肺經이 지나가는 流注路線의 길이, 수혈의 총 개수와 수혈의 이름 및 위치를 기술해 놓았다.

다음은 『聖濟總錄』에 나타난 手太陰肺經 腧穴에 대한 본문이다.

中府二穴：肺之募，一名膺中輸。在雲門下一寸，乳上三肋間，動脈應手。手足太陰之會，治肺系急，胸中痛，悚悚臆熱，嘔逆上氣，咳唾濁涕，肩背痛，風汗出，腹脹食不下，喉痺肩息，膚骨痛，寒熱。刺入三分，留五呼，可灸五壯。

雲門二穴：在巨骨下，俠氣戶傍各二寸陷中，動脈應手，手太陰脈氣所發，治喉痺，胸中煩滿，氣上衝心，咳嗽不得息，胸脇短氣，肩痛不得舉臂，可灸五壯。鍼入三分，刺深使人氣逆，故不宜深刺。

天府二穴：在腋下三寸，動脈中，舉臂取之，治逆氣喘不得息，目眩遠視眈眈。卒中惡鬼疰，不得安臥，禁不可灸，使人逆氣，刺鼻衄血不止。刺入四分，留三呼。

俠白二穴：在天府下，去肘五寸動脈中，治心痛，乾嘔煩滿。刺入三分，可灸五壯。

尺澤二穴：水也。在肘中約紋上動脈中，手太陰脈之所入也，爲合。治風痺肘攣，手臂不得舉，喉痺上氣，舌乾咳嗽唾濁，四肢暴腫，臂寒短氣。鍼入三分，可灸五壯。

孔最二穴：在腕上七寸，手太陰郄。治熱病汗不出。此穴可灸三壯即汗出。咳逆臂厥痛。鍼入三分，灸五壯。

列缺二穴：去腕側上一寸五分，以手交叉頭指末筋骨罅中，手太陰絡，別走陽明。療偏風口喎，手腕無力，半身不隨，咳嗽掌中熱，口噤不開，寒瘧嘔沫，善笑縱唇口健忘，鍼入二分，留三呼，寫五吸即可，灸七壯。

經渠二穴：金也。在寸口陷中，手太陰脈之所注行也，爲經。治瘧寒熱，胸背拘急，胸滿膨脹，喉痺掌中熱，咳嗽上氣數欠，熱病汗不出，暴瘧逆逆，心痛嘔吐，鍼入二分，留三呼，禁不可灸，灸即傷人神。

太淵二穴：土也。在手掌後陷中，手太陰脈之所注也，爲腧。治胸痺逆氣，寒厥善嘔嘔，飲水咳嗽，煩惋不得臥，肺脹滿膨脹，臂內廉痛，目生白翳，眼眦赤筋，缺盆中引痛，掌中熱，數次喘不得息，噫氣上逆，心痛唾血，振寒咽乾，狂言口僻。可灸三壯，鍼入二分。

魚際二穴：火也。在手大指本節後內側散脈中，手太陰脈之所流也，爲榮。治洒淅惡風寒，虛熱舌上黃，身熱頭痛，咳嗽汗不出，痺走胸背痛不得息，目眩煩心少氣，腹痛不下食，肘攣支滿，喉中乾燥，寒栗鼓頰，咳引尻痛溺出，嘔血心痺悲恐，鍼入二分，留三呼。

少商二穴：木也。在手大指端內側，去爪甲角如韭葉。手太陰脈之所出也，爲井。治煩心善嘔心下滿，汗出而寒，咳逆痰癆，振寒腹滿，唾沫唇乾，引飲不下膨脹，手攣指痛，寒栗鼓頰喉中鳴，以三稜鍼刺之，微出血，泄諸藏熱氣，唐刺史成君綽，忽顛頰腫大，喉中閉塞，水粒不下三日，鍼之立愈，不宜灸¹¹³⁾。

이처럼 手太陰肺經의 각각의 腧穴에 대해 수혈의 이름과 개수, 위치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뒤에서는 더 상세하게 腧穴의 위치, 脈氣所發, 주치병증, 자침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氣血多少에 따른 치료법, 氣의 盛衰와 寒熱에 따른 치료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2) 小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聖濟總錄』에서는 腧穴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三人明堂圖」나 「銅人圖」를 위주로 한 서적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썼는데, 기존의 침구서적에서 腧穴을 기술할 때 단순하게 위치만 나열했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取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기에 骨度와 온몸의 骨節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聖濟總錄』은 手太陰肺經의 腧穴을 배열할 때, 기본적으로 『銅人腧穴鍼灸圖經』처럼 經脈 중심의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는 수혈의 위치만 간단하게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聖濟總錄』에서는 수혈의 穴性, 위치, 주치병증, 자침의 깊이, 留鍼 시간, 뜸장의 횟수 등을 부연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腧穴 기술 순서에 있어서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는 『靈樞·本輸』에 나오는 ‘井榮輸經合’穴의 ‘出溜注行入’하는 원리에 의해 脈氣의 원천인 井穴, 즉 少商부터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聖濟總錄』에서는 胸部에 있는 中府穴부터 사지말단 부위에 위치한 少商穴까지 차례대로 『靈樞·經脈』의 流注路線에 맞추어 서술¹¹⁴⁾함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유기적 연관성을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經脈의 腧穴 기술 방식은 宋代 이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표준이 되고 있다¹¹⁵⁾.

113) 趙吉編 聖濟總錄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1992년 인쇄). pp.3129-3130.

114) 『銅人腧穴鍼灸圖經』과 『聖濟總錄』은 手太陰肺經의 수혈 서술에 있어서 기실 유주 방향만 반대일 뿐이며 체간의 수혈과 사지의 수혈을 함께 묶어 서술함으로써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증시한 『靈樞·經脈』의 본旨를 잘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5)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99.

Ⅲ. 고찰

1. 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 연결된 의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手太陰肺經의 流注가 기술된 초기문헌, 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서 분리된 문헌, 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 연결된 문헌으로 나누어 手太陰肺經의 수혈 배열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中府와 雲門穴의 소속 經脈의 확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워서 論하고자 한다.

『黃帝明堂經』의 원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鍼灸甲乙經』의 수혈 설명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雲門 : 在巨骨下, 氣戶兩傍各二寸陷者中, 動脈應手, 足太陰脈氣所發, 攀臂取之. 刺入七分, 灸五壯, 刺太深令人逆息 (氣府論注云: 在巨骨下, 任脈兩傍各六寸. 刺熱穴論注云: 手太陰脈氣所發).

中府 : 肺募也, 一名膺中俞. 在雲門下一寸, 乳上三肋間動脈應手陷者中, 手足太陰之會. 刺入三分, 留五呼, 灸五壯¹¹⁶⁾.

周榮 : 在中府下一寸六分陷者中, 足太陰脈氣所發, 仰而取之, 刺入四分, 灸五壯.

胸鄉 : 在周榮下一寸六分陷者中, 足太陰脈氣所發, 仰而取之, 刺入四分, 灸五壯.

天谿 : 在胸鄉下一寸六分陷者中, 足太陰脈氣所發, 仰而取之, 刺入四分, 灸五壯.

食竇 : 在天谿下一寸六分陷者中, 足太陰脈氣所發, 仰而取之, 刺入四分, 灸五壯.

『鍼灸甲乙經』에서는 四肢部의 수혈을 제외한 頭面體幹部의 수혈을 설명할 때 ‘脈氣所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수혈에는 中府穴처럼 ‘~之會’라는 표현을 써서 두 개의 ‘脈氣所發’이 나타나고, 어떤 수혈에는 ‘脈氣所發’이 나타나지 않아, 후대 醫家들은 이런 腧穴들을 어떤 경맥에 소속시켜 논의할 것인

가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려 통일되기가 어려웠다.

논자는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이 散在된 主治症을 모아 정리하였음을 보고 한 가지 가상 실험을 하고자 한다. 즉 楊上善이 ‘脈氣所發’이 초래한 혼란을 극복하고 소속 경맥을 확정¹¹⁷⁾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主治症의 고찰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楊上善이 저술한 『黃帝內經明堂』은 현재 序文과 手太陰肺經부분만 남겨져 있어 다른 경맥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없는데, 『醫心方』의 主治症은 비록 간략하지만 그 내용이 『黃帝內經明堂』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楊上善注에 나온 내용이 『醫心方』 수혈 설명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醫心方』에 남겨진 主治症이 『黃帝內經明堂』의 主治症이라고 추정하고 다음 논의를 계속 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¹¹⁸⁾.

雲門, 中府, 周榮, 胸鄉, 天谿, 食竇는 胸部에서 같은 線上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주치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7) 黃龍祥에 따르면 楊上善이 『黃帝明堂經』에 기재된 349혈을 전부 상응하는 경맥에 귀입시켰다고 했다.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940.

118) 黃龍祥의 『黃帝明堂經輯校』에는 『醫心方』의 明堂經 注文과 『黃帝內經明堂』 및 『黃帝內經太素』에 나오는 楊上善注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醫心方』이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 注本을 인용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표 1 참조, 黃龍祥 輯校, 王雪菴 審訂, 黃帝明堂經輯校, 北京, 中國醫葯科技出版社, 1988, pp.252-256.) 또한 黃龍祥은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 제 1권 이외의 歸經 정황을 고찰하는 데는 오직 『醫心方』 권 2의 穴 아래에 밝힌 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941.)

표 1. 『黃帝內經明堂』의 楊上善注와 『醫心方』 明堂經 注문의 비교

『醫心方』明堂經 注文	楊上善注文
尺澤 : 有本云在肘屈大橫文中	有本云在肘屈大橫文中也(明堂注)
經渠 : 注云從關至魚一寸, 故曰寸口	從關至魚一寸, 五藏六府之氣皆此中過, 故曰寸口(同上)
至陽 : 注云風成爲寒熱, 爲瘡解爛	風成者爲寒熱(同上中府穴注).
建里 : 注云斥, 齒亦反, 推也	斥, 齒亦反, 推也(太素卷24注)
氣海 : 注云 映, 齊也	謂映齊也(太素卷21注)
小腸俞 : 注云 辜, 陰囊也	臯, 囊也(太素卷9注)

116) 黃龍祥 校注.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葯科技出版社. 1995. pp.161-162.

雲門：主喉痺，胸中暴逆，咳逆喘，胸中熱，心腹痛。足太陰脾。

中府：同上(足太陰脾)，又手太陰肺。主咳，胸中痛，惡清，多唾，肩背風，汗出面，腹腫，喉痺，肩息肺脹，皮膚骨痛。

周榮：主胸脇積滿，不得俯仰，飲食不下，咳唾凍膿穢濁也。同上(足太陰脾)。

胸鄉：主胸脇積滿，却引背痛，臥不得轉側。

天谿：主胸中滿痛，乳腫，賁癰，咳逆上氣，喉鳴。

食竇：主胸脇積滿，膈間雷鳴，常有水聲¹¹⁹⁾。

周榮，胸鄉，天谿，食竇穴은 足太陰脾經 소속으로 실제 그 주치증을 보면 脾藏과의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手足太陰之會’인 中府穴은 肺系인 喉嚨에서 팔 쪽으로 가는 手太陰肺經의 가로 노선과 足部로부터 올라와 頭部로 향해가는 足太陰脾經의 세로 노선의 교차로로써 이중적인 속성을 지녔는데, 그 주치증을 살펴보면 腹腫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증이 肺藏과 관련되어 한 곳으로 소속 경맥을 결정¹²⁰⁾하여야 한다면 마땅히 手太陰肺經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中府穴은 肺募穴이고, 『靈樞·經脈』에 나타난 ‘從肺系橫出腋下’의 流注路線에 있으며, 『靈樞·逆順肥瘦』나 『靈樞·脈度』에 나타난 經脈의 起始點과 終止點을 충족시키므로, 手太陰肺經의 소속 경맥으로 확정지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雲門穴은 주치증에서 肺藏과 연관되는 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脈氣所發’이 ‘太陰’, ‘手太陰’, ‘足太陰’ 등 판본마다 달라져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楊上善이 본 판본은 아마도 ‘足太陰脈氣所發’이라고 되어 있어서 食竇, 天谿, 胸鄉, 周榮穴의 세로 연장선상의 의미로 足太陰脾經에 소속시켜

서술했으리라 추정된다. 楊上善이 雲門穴의 소속경맥을 足太陰脾經으로 보았다는 근거는 『黃帝內經太素』에 나오는 楊上善注와 『醫心方』을 통해서이다. 『太素·診候·死生診候(錢超塵이 붙인 假稱)』에서 『素問·三部九候論』에 나오는 “下部人, 足大陰也.”¹²¹⁾에 대한 楊上善注에 “下部之人, 足大(太)陰脈動, 在中府箕門五里陰廣衝門雲門六處, 以候脾氣.”¹²²⁾라고 되어 있다. 또한 『醫心方』에서 “雲門二穴, 在巨骨下, 氣戶兩旁各二寸陷者中, 動脈應手, 舉臂取之. 注云巨骨謂是缺盆下畔橫大骨也. 刺七分, 灸五壯. 主喉痺, 胸中暴逆, 咳逆喘, 胸中熱, 心腹痛. 足太陰脾”¹²³⁾라고 하여 雲門穴의 脈氣所發을 ‘足太陰脾’라고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근거에 의거해 볼 때, 楊上善이 雲門을 足太陰脾經에 배속시켜 서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黃帝內經明堂』에 나타난 手太陰肺經의 수혈 서술 방식 이외에도 序文의 “12경맥을 각각 1권씩 만들었다.”는 내용, 『醫心方』에 보존되어 있는 『黃帝內經明堂』의 主治症의 고찰, 『靈樞·經脈』의 流注路線, 『靈樞·逆順肥瘦』나 『靈樞·脈度』에 나타난 경맥의 起始點과 終止點의 규격 고려 등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楊上善은 12경맥 수혈들 모두의 소속 경맥을 확정지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I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黃帝內經』 등에 나타난 肺經의 流注 및 腧穴을 살펴본 뒤, 中府와 雲門穴이 肺經 流注에서 분리된 문헌인 『鍼灸甲乙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方』, 『醫心方』, 『太平聖惠方』과 上記 二穴이 肺經 流注에 연결된 문헌인 『黃帝內經明堂』, 『銅人腧穴鍼灸圖經』, 『聖濟總錄』에 나타난 肺經의 腧穴 배열법을 문헌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21)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80.

122)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80.

123)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39.

119)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39.

120) 楊上善이 각론에서 수혈을 배열하기 전에 전체적인 수혈의 목록을 개괄적인 설명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手太陰肺經 이외의 모든 경맥들도 그 소속 경맥을 확정지었으리라 추정된다. 다만 소속 경맥을 확정지를 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靈樞·經脈』에 나타난 流注路線과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靈樞·逆順肥瘦』나 『靈樞·脈度』에 나타난 經脈의 기시점과 종지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주치증을 살펴볼 때, 그 경맥과의 연관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1. 楊上善은 이론 분야는 『黃帝內經太素』, 鍼灸腧穴 분야는 『黃帝內經明堂』을 편찬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그가 太醫侍御로서 통일국가인 隋나라의 醫籍을 정비하는 주체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楊上善은 『黃帝內經明堂』(666-683년)에서 우선 肺藏이 가진 金의 속성을 『內經』을 인용하여 서술한 뒤에 手太陰肺經 腧穴을 서술함으로써, 『靈樞·經脈』의 本旨인 경락과 장부의 연관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主旨하에 『靈樞·逆順肥瘦』의 ‘從藏走手’에 맞추어 中府穴을 手太陰肺經 腧穴로 귀속시켜 서술한 것으로 본다. 이는 기존 침구 서적인 『鍼灸甲乙經』,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方』, 『醫心方』, 『太平聖惠方』 등의 문헌에서 中府穴이 肺經流注에서 분리되어 기술되었던 것과 다르며, 『銅人腧穴鍼灸圖經』(1026년) 또는 『聖濟總錄』(1111-117년)보다 350여 년이나 앞선다.
3. 『黃帝內經明堂』에 나타난 手太陰肺經의 수혈 서술 방식 이외에도 序文의 “12경맥을 각각 1 권씩 만들었다.”는 내용, 『醫心方』에 보존되어 있는 『黃帝內經明堂』의 主治症의 고찰, 『靈樞·經脈』의 流注路線, 『靈樞·逆順肥瘦』나 『靈樞·脈度』에 나타난 경맥의 起始點과 終止點의 規格 고려 등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楊上善이 12경맥 수혈들 모두의 소속 경맥을 확정지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4. 李丙旭.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慶州.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 p.142.

<단행본>

1. 高炯均, 印昌植. 침구의학의 뿌리(黃帝三部鍼灸甲乙經 腧穴學讀本).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pp.129-130.
2. 丹波康賴 撰. 翟雙慶 張瑞賢 等 校注. 醫心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28, 39, pp.33-35.
3. 鄧良月 主編. 中國鍼灸經絡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4. p.552.
4. 馬繼興 著.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97.
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湖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07, 267.
6. 徐春甫 編集, 崔仲平, 王耀廷 主校. 古今醫統大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22.
7.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外臺秘要方(下)(東洋醫學善本叢書 5).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768, 773, 775, 776, 782.
8. 小曾戶洋 監修 篠原孝市の 3人 編集. 解題·研究·索引(東洋醫學善本叢書 8). 大阪. 東洋醫學研究所. 1981. p.163.
9. 小曾戶洋 著. 中国医学古典と日本：書誌と伝承. 東京. 塙書房. 2005. p.155.
10.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08, 523.
11.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10, 997, 1000.
12. 孫思邈 著. 李景榮等 校釋. 千金翼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02, pp.396-397, 403-404.
13. 楊上善 撰注, 蕭延平 校正, 王洪圖, 李雲 重校.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p.7.
14. 王燾 撰. 外臺秘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797, pp.786-788.
15. 王冰 著,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影印本).

V. 參考文獻

<논문>

1. 金度勳. 『刪繁方』의 복원에 관한 연구 : 『外臺秘要方』, 『千金方』, 『醫心方』을 중심으로.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p.15.
2. 柳姪我. 『黃帝內經太素』의 輸穴理論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 25(1). p.40.
3. 孫光絡, 朴炫局. 經脈體系의 形成과 發展에 관한 研究(I). 東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7. 6(1). p.37.

- 서울. 一中社. 1993. p.91, 157.
15. 王惟一 撰. 黃龍祥, 黃幼民 校注. 銅人腧穴鍼灸圖經(針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72.
 17.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80. pp.3173-3177, 3196-3198, 3198-3201.
 18.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 卷99(中國古代醫方真本秘本全集 戰國-宋元時期 卷31).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p.6472.
 19. 李栽東, 金南一 共編. 中國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집문당. 1997. pp.234-235.
 20.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著. 大學 經絡經穴學 各論(上). 원주. 醫方出版社. 2009. pp.8-51.
 21.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80, 656, 905, 913. pp.699-722.
 22. 趙佶 編. 聖濟總錄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2(1992년 인쇄). pp.3129-3130.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 24, 142, 201, 214.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 20, 22, 79, 84.
 25. 黃龍祥 輯校, 王雪苔 審訂. 黃帝明堂經輯校.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p.260, pp.252-256.
 26. 黃龍祥 校注.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5. pp.161-162, 173-174.
 27. 黃龍祥 主編. 中國鍼灸史圖鑑 上卷. 青島. 青島出版社. 2003. p.59, 189.
 28.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p.99, 441, 753, 940, 941.

<사전류>

1. 東洋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東洋醫學大事典.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503.